



당신의 능력을 스카웃합니다








# 2004 인천여성취업박람회

인천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인천지하철 동춘역 1번 출구 이마트 옆)  
2004년 9월 17일(금) 10:00 ~ 18:00

- 행사기간 : 오프라인 : 2004년 9월 17일(금)  
온 라 인 : 2004년 9월 6일(월) ~ 9월 20일(월)  
사전접수 : 2004년 8월 23일(월) ~ 9월 5일(일)
- 행사URL : <http://inwoman.jobkorea.co.kr>
- 참가대상 : 경인지역 채용 예정 기업체 및 인천지역 내 여성구직자
- 참가방법 : 행사당일 현장접수 및 행사사이트 통한 사전접수
- 참가비용 : 무료
- 행사내용

채용관	컨설팅관	정보관	홍보관	취업이벤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관리 채용관</li> <li>· 마케팅 채용관</li> <li>· R&amp;D 채용관</li> <li>· 디자인 채용관</li> <li>· 특수전문직 채용관</li> <li>· 사회적일자리 채용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 컨설팅</li> <li>· 면접 컨설팅</li> <li>· 이미지 컨설팅</li> <li>· 경력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장 창업지원과</li> <li>· 웰빙 창업관</li> <li>· 소기업 창업관</li> <li>· 유망자격증 정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li> <li>·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li> <li>· 인천여성문화회관</li> <li>·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li> <li>·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li> <li>·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li> <li>· 중국 천진시 부녀연합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적성검사</li> <li>· 잡카페(취업도서관)</li> <li>· 이미지 포토존</li> <li>· 네일아트/아로마테라피</li> <li>· 이미지 커리커처</li> <li>· 희망의 숭사탕/희망의 게시판</li> <li>· 다중지능검사</li> </ul>

▶ 문의처 : Tel.02)565-4333, FAX.02)565-9351  
E-MAIL. [inwoman@jobkorea.co.kr](mailto:inwoman@jobkorea.co.kr)

- 주 최 :  인천광역시
- 주 관 :  (특)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Recruiting Network 
- 후 원 :  여성부  경인지방 노동청  TBN 인천교통방송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 INCHEON

2004 | 09



고인들축제 · 주안미디어축제 · 청소년대축제 · 능허대축제  
한가위 맞아 인천 술을 말한다  
1318 청소년문화존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 松 ... 그리고 노을

시청 본관 중앙홀이 멋지게 변신했다. 홀 한 가운데 작은 ‘숲속 쉼터’가 생겼다. 높이 2.5 ~ 4m의 소나무 다섯 그루가 운치 있게 서있다. 곁길만 실 제 나무재질이고 줄기와 잎은 FRP, 폴리 재질 등으로 만들어졌지만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은 소나무 밑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숲 속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한 중앙홀 벽면에는 바다, 공항, 노을 등 동북아 중심도시로 떠오르는 우리시의 위상과 관광도시로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 2층과 4층 사이 복도 벽면에 설치된 이 대형보드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대형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_김정석



##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9 (통권 129호)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9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강화도의 가을 들녘

## Contents

- 02窓 2004 | 시청 중앙홀의 ‘숲속 쉼터’
- 04秋 ... 그리고 축제 |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외
- 06동서남북 | 인천예총 국악회관
- 10함께 나누는 세상 | 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
- 12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⑧ | 강화도 광성보 (사적 제 227호)
- 16in. Stage | 인천시립극단 〈거짓말하는 여인〉 외
- 20리뷰 | ‘미술관 습격사건’ 참가기
- 21청공청해 인천의제 21 뉴스 | 악취가 싫어요, 악취 모니터링가구 교육 외
- 22굿인천 굿뉴스 | 영종주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외
- 25의정소식 | 박승숙 의장, 의장협 부회장 선출 외
- 26브리핑 | 주안역 환승정류장 설치
- 28조명 | 인천책30cm서가운동
- 30주부리포터 |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 32Youthzine | 청소년 국제교류단 천진시 방문기
- 34과거로의 시간여행 | 프로레슬링은 쇼? ... 그래도 우린 열광했다
- 35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염박사순대보쌈 · 이학면옥
- 36술 vs 술 | 인천의 3주(酒)를 말한다
- 40Youngpage ① | 문학유스센터
- 42Youngpage ② | 청소년문화존(Zone)
- 43Healthy life | 시력교정
- 44알아봅시다 | 한가위 맛이 춘수 · 호칭 배우기
- 46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아홉번째 사람 | 화가 조부수
- 50독자마당 | 이달의 테마 ‘결혼식’
- 53Info Box |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공모합니다 외
- 59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⑩ | 전운영 〈연안부두〉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秋 ... 그 리 고 축 제

천 년 시 간 을 되 돌 린 다

# 강화고인돌문화축제



2004 강화고인돌문화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역사의 고장 강화도의 고인돌광장에서 열린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강화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강화의 관광명소를 한데 묶어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이다.

강화읍 일대에서 열리는 첫째 날 행사는 전국체전 성화채화로 시작돼 철종 임금의 등극행렬 퍼레이드까지 이어진다. 10월 2일과 3일에는 고인돌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시인퍼포먼스와 고인돌축조재현 등의 행사가 볼만하다. 아울러 전통혼례, 팔씨름대회, 완초공예 경진대회, 꽃창굿, 용두레공연 등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벌어진다.

원시광장을 테마존으로 꾸며 방문객이 고인돌과 원시시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다도시연, 완초공예체험, 팔만대장경 판각 재현, 고인돌 탐방, 고려청자 만들기 등도 행사 기간 내내 참여할 수 있다. (축제일정은 본지 53면에)

문의 \_ 강화고인돌문화축제추진위원회  
(930-3621, <http://www.ganghwadolmen.com>)

사진 \_ 김성환



## 2004 주안미디어문화축제 JuMF

9월3일(금)부터 5일(일)까지 주안역 일대



40여명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설치될 'Joy mART'에는 관객들이 직접 만지고 즐기는 작품들로 채워진다. 디지털영화제 eMotion film festival은 멀티플렉스 극장 맥9의 제2관 eMoff Room에서 3일간 총 10회(토요일 심야상영) 상영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축제 樂 & 놀은 러브홀릭, 레이저 본과 같은 유명 락 그룹사운드의 공연이다. 이밖에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위닝일레븐대회 'e-Sports', 'DigiTalk2030', '아트를 찾아라'와 같은 모바일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들도 벌어진다.

문의 \_ 미디어축제사무국 (868-9861~2)

## 제2회 인천시 청소년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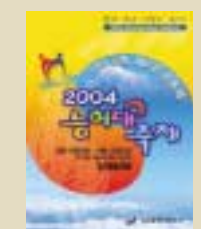
9월 18일(토) 오후 문학경기장 주변

청소년대축제가 '비상II-무지개빛 세상을 향해'를 주제로 공연마당, 참여마당, 전시마당, 테마전시마당으로 꾸며진다. 공연마당은 그동안 동아리, 개인 단위로 준비하고 연습해온 댄스, 연주, 노래 실력을 뽐내는 무대이고, 전시마당은 사진, 그림, 창작품의 작품과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마당이다. 참여마당은 과학매직, 미로쇼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고 테마전시마당에서는 '청소년이 바라 본 인천, 인천인'이라는 주제로 사진, 다큐멘터리, 동영상, 르포기사, 인천홍보 포스터 작품 등이 전시된다.

문의 \_ 문학유스센터 (437-1318, 429-1318)

## 2004 능허대 축제

9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능허대 일원



교류와 소통, 새로운 공동체를 주제로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 일원에서 능허대 축제가 열린다. 능허대는 백제가 중국 동진과 교류를 시작한 근초고왕 27년(372)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개로왕

21년(475)까지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출발했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18일 행사에는 연수구 합창단의 공연과 사신행렬을 비롯한 대북공연, 풍물공연, 궁중무용 등 백제시대 문화를 재현한다. 이어 주현미, 소찬휘, 자전거탄풍경 등 스타들의 무대와 불꽃축제로 축제를 더욱 뜨겁게 고조시킬 것이다. 19일에는 타악페스티벌, 락페스티벌, 스포츠댄스의 흥겨운 무대와 능허대 광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게임대회, 만화그리기 대회 등이 열린다.

문의 \_ 810-7086



# 수봉산에서 육자배기 한가락 뽑아 볼까

“매앰~매앰~” “쿵덕궁, 쿵덕궁 일쑤”

조급함과 늘어짐. 묘한 어울림이다. 생을 마무리하는 매미의 처절한 소리와 결코 끊어질 것 같지 않은 느긋한 국악 장단이 마치 주고받듯 공원에 울려 퍼진다. 늦여름 한낮, 공원의 고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분위기는 울창한 숲 한켠에 자리잡은 국악회관에서 흘러나오는 가락과 장단이 깨버린다.



1

인천국악의 요람, 국악회관은 남구 수봉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공원 오르막이 끝나는 곳에 기와를 얹은 건물이 인천문화회관이고 그 옆의 황토색 2층 벽돌집이 바로 국악회관이다. 현재 인천예총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정식명칭은 ‘인천예총 국악회관’이다.

회관 로비에 들어서니 이곳 저곳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1층 연습실을 뚫어보니 40명의 젊은 이들이 목을 길게 빼고 손장단을 맞추며 흥겹게 민요를 부르고 있다. 2층 공연장 연습실에서는 청아한 단소음이 새나온다. 방학을 맞아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국립국악원의 도움으로 국악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하층 제2 연습실에서는 예닐곱명의 주부들이 시립무용단원을 지낸 한울무용단 부회장 김정선씨의 지도로 한국무용 강습을 받고 있다. 취미로 배우는 아마추어들이라고 하기에는 모두들 춤사위가 범상치 않다.



2

##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국악배움터

국악회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국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만 드나드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국악회관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악을 생활 속에 즐기는 방법은 연주회나 오디오를 통해 국악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역시 자신이 직접 해보는 것 만한 게 없다. 국악회관은 인천국악협회의 주관으로 일반인들이 국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민요, 가야금, 풍물 등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소리’가 하루종일 끊이지 않는다.

국악회관은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7기생들이 국악을 배우고 있는데 매 기수별 160~18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야금, 민요, 무용, 풍물, 대금은 물론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판소리, 해금, 모듬북을 비롯해 한자교실, 서예, 전래동요교실 등도 새롭게 열었다. 과정 중간에도 수시로 접수를 하며 8기생은 12월 초에 시작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강좌로는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둘 등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개설된 무료 사물놀이반이 있다. 두드림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수요일, 토요일에 2시간씩 총 48시간 강습하고 있다. 현재 1기에 이어 2기가 진행중이며 10월까지 진행된다.

국악회관은 미래의 국악계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초·중·고등학교의 국악 동아리와 CA반들에게 무료로 연습실 제공은 물론 악기대여와 강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반인들도 회관 내 모든 연습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4



## # 얼쑤~ 국악봉사단 나가신다

국악회관 로비 한편에는 간이 자료실이 마련돼 있다. 한국의 판소리 등 서적과 한국민요대전 음반 등 국악 관련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인천에는 국악협회를 비롯하여 국악 및 민속관련 단체들은 있지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악회관은 인천 국악협회와 함께 국악 관련 서적, 음반, 악기, 사진, 인쇄물 등 국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자료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간이 자료실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국악자료와 음악 등을 제공하고 있고 국악회관 홈페이지(www.kukakhall.com)를 통해 인천의 민요를 비롯해 국악 감상과 국악이론 등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8

1 '태산이 ~ 높다하되 ~' 방학을 이용해 국악 직무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들 2 국악회관 전경 3·8 김정선씨의 한국무용 강습 4 단소강습 5·6·7 국악문화학교 수료생 제1회 발표회

국악회관은 국악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가서 그동안 갖고 닳은 재능으로 한바탕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펼치며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회원자격은 봉사활동에 뜻을 가진 국악회관 및 국악협회 회원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다. 봉사부문은 가야금, 사물놀이, 무용, 민요 등 공연봉사와 공연준비 및 진행을 돕는 진행요원봉사 그리고 청소 및 세탁봉사로 나뉜다.

수봉공원에 등지를 뜬 지 2년. 이제 국악회관은 인천 국악의 발전과 저변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악진흥회, 진주민속예술진흥회, 강화 전통문화예술연구소 등 타지역의 국악문화학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학교의 활성화와 인재육성에 더욱더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정식

## ■제 7기 국악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

주·아반	강좌프로그램	과 정	시 간	강 사	강 습 비
주간반	가야금	중급반	수 오후 5시~7시	홍은주 (미추홀 국악단 단장)	3개월 9만원
		향상반	토 오후 2시~4시	박준선 (가야금전문강사)	3개월 9만원
		향상반	목 오전 10시~12시	이자경 (가야금전문강사)	3개월 9만원
	민요(장구)	초·향상반	목 오후 2시~4시	이순희 (국악협회 민요분과위원장)	3개월 7만원
	대금	초급반	금 오전 11시~1시	임경배 (무형문화재4호 전수자)	3개월 9만원
	모듬북	초급반	월 오후 2시~4시	이혜주 (타악전문강사)	3개월 9만원
		향상반	월 오후 4시~6시	이혜주 (타악전문강사)	3개월 9만원
	판소리	초·향상반	화 오후 4시 30분~6시	민혜성 (국악인)	3개월 9만원
	서예	초급반	목 오전 11시~1시	이명숙 (서예학원장)	3개월 6만원
	해금	초·향상반	토 오후 2시~4시	노정아 (국악단 해금수석)	3개월 9만원
	한국무용	중급반A	수 오후 2시~3시, 금 오후 2시 30분~4시	손삼화 (전시립무용단 단원)	3개월 9만원
		향상반	수 오후 3시~4시, 금 오후 4시~5시	손삼화 (전시립무용단 단원)	3개월 9만원
		초급반	수 오후 4시~5시, 금 오후 5시~6시	손삼화 (전시립무용단 단원)	3개월 9만원
		중급반B	수 오전 11시~1시	김정선 (한울무용단 부회장)	3개월 9만원
야간반	가야금	향상반	화 오후 7시~9시	강희진 (금율악회 회원)	3개월 9만원
		초급반	금 오후 7시~9시	강희진 (금율악회 회원)	3개월 9만원
		초·향상반	목 오후 6시~8시	이자경 (가야금전문강사)	3개월 9만원
	한자교실	초급반	화/금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최명식 (국악협회 부회장)	3개월 6만원
	대금	초·향상반	목 오후 7시~9시	임경배 (무형문화재4호 전수자)	3개월 9만원
	풍물	초급반	금 오후 7시~9시	이민순 (국악단 타악 수석)	3개월 6만원
		향상반	월 오후 7시~9시	김미나 (사물전문강사)	3개월 6만원
	단소	초·향상반	월 오후 7시~9시	이경우 (단소전문강사)	3개월 6만원
	전래동요교실	초급반	목 오후 7시~9시	홍은주 (미추홀 국악단 단장)	3개월 9만원

찾아가는 길 \_ '좌문화 우은울'. 왼편에 인천문화의 본산인 인천문화회관과 오른편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61호 은율탈춤 전수관을 두고 있는 국악회관은 수봉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산 속에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다소 아쉽다. 제물포역이나 주안역에 내려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4, 5, 15, 21, 22, 23, 33번)를 이용해 10여분 정도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문의 \_ 875-4644 / 876-8364



# 마지막 잎새까지 함께한다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5B병동은 백혈병을 비롯해 악성혈액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 질환을 다루는 혈액종양내과병동이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사이사이로 밝은 웃음을 지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환자의 발을 주무르는 이, 어깨를 안마하는 이, 누워있는 환자의 등을 두드리는 이... 6명의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하는 이들은 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다.

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체로 1999년 2월 27일 창립했다. 인천살림호스피스라는 명칭으로 출발해 5년여 동안 11기에 걸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650여명의 봉사자를 배출했다. 호스피스(hospice)는 말기암 등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통증 치료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금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의료원, 한림병원, 무의탁시설, 가정 등에서 약 150여명의 봉사자들이 말기암이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다.

“말기 암환자들을 종합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2년 반 동안 만나는 환자도 있어요.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돌보려 왔다고 생각하던 환자들도 진심어린 돌봄에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는 치료 때문에 힘이 들고, 가족들은 오랜 뒤치다꺼리에 지쳐 환자와 가족이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환자들과 가족들을 오래 만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환자와 가족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지요.” 올해로 5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는 채경옥 씨(46 · 남구 주안4동)의 설명이다.

자원봉사를 하고 집에 가면 앓아눕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를 막상 대하게 되면 뭐든 다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부종으로 뭉뚱하게 부은 다리와 발을 꼼꼼히 주무르다 보면 손의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오기도 한단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덕분에 환자들 중에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보고 ‘천사들이 다녀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 어떤 환자는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보고 싶다고 찾았다. 비상연락망을 돌려서 호스피스가 도착을 하니 그제서야 눈을 감기도 했단다.

길병원에서 만난 김석자 환자(62세)는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것과는 달리 호스피스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며 사진촬영을 기꺼이 허락해 주기도 했다. 2년 반 동안 호스피스의 봉사를 꾸준히 받아온 터라 그들이 얼마나 진심어린 봉사를 하는 분들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인천호스피스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말기환자 심리상태, 환자의 신체 · 정신돌보기 등의 호스피스 이론과 실기교육, 발마사지, 미용교육, 수지침 등을 배운다. 교육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월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지침 강의를 진행하고 수요일에는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이 · 미용교육이 있는가 하면 환자 돌보는 방법, 발마사지, 정신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꾸준히 이어진다.

“인천에는 호스피스 시설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시설은 환자가 사는 동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음악, 향기, 미술치료를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지요. 인천같은 큰 도시에 호스피스 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스피스 시설을 짓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회장의 설명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이들의 도움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도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환자들 많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_ 정경애 · 사진\_ 김정식



1·2·3·4 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봉사하고 있는 인천호스피스 봉사자들 5 보수교육으로 수지침을 배운다

## Info box

### 호스피스 봉사 하실 분 교육 받으세요

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에서는 호스피스로 봉사할 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열린다. 만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따로 없지만 교재비 등 1만원은 별도다. 이 교육은 김태식 박사, 이운재 교수, 김미자 선교사, 최광영 목사, 박덕규 봉사자 등 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맡는다.

문의 \_ 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 434-7007





# 엄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충절을

안성림 씨는 강화에서 태어나 45년을 산 토박이다. 하지만 강화에 대해서는  
관광 오는 외지사람 보다 아는 것이 적고 역사의 현장을 공원 다녀가듯 산책길로 여겼던 게 못내 미안해  
아들 한원준(강화 선원초 6), 딸 은주(강화여중 2)와 함께 하는 문화재 탐방을 신청했다.



광성보의 입구 안해루 오른편으로 난 오르막길을 오르  
기 시작했다. 다행히 해가 짹짹 뜨지 않아 양산을 접고 모  
자를 벗었다. 이 길의 시작 부분 왼쪽 길옆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뿌리가 땅위에 거미줄처럼 드러나 황토 흙을 팍  
물고 있었는데 뿌리 자체가 나무줄기처럼 굽어 원준이는  
팔뚝을 내밀어 견주어 보기도 했다. 숲길을 계속 오르면  
신미순의총, 쌍충비각, 손돌목돈대를 거쳐 용두돈대까지  
갈 수 있다.

## 전쟁의 아픈 생채기

중턱쯤 오르자 문화유산해설사 조정녀 씨가 강화를 알려면 전쟁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며 나무그늘 밑으로  
오라고 한다.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흐르는 바다를 염하라고 해요. 이 바다에서 10여 년 간 무려 세 차례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  
을 폈어요. 조선의 문화를 개방하라는 외국의 강력한 주장에 맞서고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를 탄압하다 끝  
내 신미·병인양요의 혈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조선이 문화를 개방해 다른 나라 문물을 받  
아들이고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고유의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강화도 염하는 당시 한양으  
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었지요. 한양을 공격하고 왕을 해치려면 저 바다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듣는 엄마는 영락없는 여고생의 모습이다. 그의 미소는 상수리나무에도 걸치고 염  
하바다에도 빠지고 푸른 이끼에도 미끄러졌다. 어쩌면 홍이포 구멍에 들어가 700m 밖에 뚝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애 셋을 키우는 동안 처음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됐다  
며 안성림 씨는 너무 좋아 박장대소를 한다. 반면 숫기 없는 원준이와 은주는 카메라를 의식한 탓인지 줄곧  
차렷 자세로 반듯하게 다니면서도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놓칠 새라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는다.





## 그 역사들으니 ... 눈물이 난다

강화는 5진 7보 53돈대로 되어있다. 초지진, 덕진진 할 때의 진(鎭)은 한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진영으로 대대병력을 말하며, 광성보, 덕성보 할 때의 보(堡)는 흙과 돌로 쌓은 작은 성으로 중대병력을 생각하면 된다. 강화도의 해안선을 따라 53 곳에 있는 돈대(墩臺)는 주변보다 높고 평평한 곳을 뜻하는 말로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그 위에 작은 요새를 만든 것으로 일개 소대 병력으로 생각하면 쉽다.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인 광성보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 한 후에 돌과 흙을 섞어 해협을 따라 길게 쌓은 성이다. 조선 광해군 때 헐어진 데를 다시 고쳐 쌓았으며, 효종 9년(1658)에 강화유수 서원이 광성보를 설치했다. 그 후 숙종 때(1679)에 이르러 완전한 석성(石城)으로 축조된 것이다.

광성보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이다. 그 해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오는 미국 극동함대를 초지진, 덕진진, 덕포진 등의 포대에서 일제사격을 가해 물리쳤다. 그러나 4월 23일 미국 해병대가 초지진에 상륙하고, 이튿날에는 덕진진을 점령한 뒤 여세를 몰아 광성보로 쳐들어왔다. 이 전투에서 미군측은 3명의 전사자를 내었고 조선군은 뒤떨어진 무기로 분전하다가 포로 되기를 거부하고 350명 전원이 바다에 투신하거나 자결했다.

조선군 지휘관인 어재연(魚在淵)장군의 전적비인 쌍충비각, 신미순국 무명용사비가 이곳에 있다. 일행은 당시 전사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는 51구의 시신을 7~8구씩 7기의 분묘에 합장한 신미순의총 무명용사들의 무덤 앞에서 고개 숙여 묵념을 올렸다.

양팔을 뻗어 성벽의 길이를 쟀 듯 둘러본다. 원준이는 전쟁을 아는지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게 숙연했고 일행은 점점 이곳이 자연경관 뛰어난 휴양림이 아닌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광성보에는 광성돈대, 손돌목돈대, 용두돈대 등 모두 3개의 돈대가 있다. 광성돈대에는 홍이포, 소포, 불랑기 등 3대의 포가 있고, 손돌목돈대는 군수물품 보급창으로 많이 이용됐다. 마치 용머리처럼 암반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용두돈대는 해안을 따라 성곽이 만들어져있어 영화의 한 장면과 견줄만큼 아름답다.

앞의 염하바다에는 손돌풍으로 이름난 손돌목이 있다. 염하 건너 동남쪽으로 보이는 곳이 덕포진이고 덕포진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언덕위에 보이는 묘가 뱃사공 손돌의 묘이다.



“역사를 알면 눈물이 나요. 어쩔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할 때가 있지요.”라는 문화유산해설사 조정녀씨의 말에 원준이 엄마는 “애국자가 따로 있나요? 해설사님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애국이지요”라며 또박 또박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렸다.

원준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한 학기 남았다. 집에 가면 광성보에 관한 메모를 옮기고 일기를 네 바닥 쓸 거라고 한다. 기록은 눈으로 보여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여기 우리민족의 살신호국(殺身護國)정신을 배우고 가는 강화도는 기억 속에서 오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안해루 옆 숲길 소나무가 생각한다. 팔뚝만한 뿌리들이 황토 흙을 꼭 물고 놓지 않던...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사진 \_ 김성환

**1** 휴양림처럼 자연 경관이 빼어난 역사의 현장 광성보 **2** 광성보 입구 안해루 **3** 신미순국 무명용사비 앞에서 구수한 역사 얘기를 풀어놓는 문화유산 해설사 조정녀씨 **4** 무명용사의 무덤 앞에서 묵념을 올리는 일행 **5** “저기 앞바다가 바로 염하란다”

## 염하에 흐르는 형제이야기

형제는 용감했다. 어재연 장군(1823~871)은 조선 말기의 장수로 조선 헌종7년(1841)에 무과에 급제하여 고종3년(1866) 공충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 해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우리군 선봉장으로 강화도 광성진을 지켰다. 동생 어재순은 선비였으나 “나라가 난국인데 글을 읽어 뭐하겠느냐, 이 한 몸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해 달라”하여 형과 함께 전쟁에 나가 1871년 신미양요 때에는 진무 중군으로 광성진을 지키다가 미군과 격전 끝에 전사했다. 미군측은 전쟁에서 이긴 것도 모자라 53구의 시신들을 불에 태우는 바람에 어재연과 어재순의 시신을 가까스로 찾았다. 전쟁이 벌어지던 날 아침 어재연 장군 부인이 두 분께 각각 표식을 해 두었는데, 어재연장군께는 상투머기 끝에 평상시 하던 검정색이 아닌 자주색 조리개를 매주었다고 한다. 동생 어재순에게는 버선을 뒤집어 신도록 하여 타다만 잣더미 속에서 시신을 구별할 수가 있었다는 아사가 전해 내려온다.





## 인천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거짓말하는 여인

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정진)은 인천의 소극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여인>을 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정통 소극장 공연으로 무대와 객석의 공간적인 거리를 최소화하여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객석의 몰입과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극장 공연의 참맛을 살려내 순수연극에 대한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침체된 소극장 공연의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극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무대를 배경으로 극의 빠른 진행으로 희극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등장인물들의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거짓말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라도 뒤집어보면 환상 속의 행복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쾌한 진행으로 관객들에게 자유로운 삶의 행복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기간에는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물포역에서 수봉문화회관까지 공연 전 두 차례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일시** \_ 9월 3일(금) ~ 12일(일) 평일 오후7시30분  
토·일요일 오후4시 (월요일은 공연 없음)

**장소** \_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일반단체 7,000원 / 학생단체 3,000원)  
**문의** \_ 420-2790, 438-7775



## 문학경기장 매소홀 개관기념

## 조부수 화백 초대전



국내 현존하는 작가 중 최대크기, 최다작품, 최다작업량의 화가로 정평이 난 조부수 화백. 그는 특히 색채감각에 있어서는 마티스를 능가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으며 '색채의 마술사' '색채의 거장' 이라고도 불린다.

인천 주안 태생인 그는 40여년 전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인천문화센터(경동옛 상업은행 뒤편) 개관기념전에 초대받는다. 그 후 홍익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예술혼을 불태워 왔다.

이번 초대전에는 그 당시 출품했던 수채화 수 십점은 물론 인천항, 월미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 40여 년전 인천의 풍광과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작품과 그동안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일시** \_ 9월 3일(금) ~ 10월 7일(목)

**장소** \_ 문학경기장 전시장(매소홀)

**문의** \_ 017-560-5512

<월미도 제빙공장>

## 숨쉬기와 숨 헤아리기

숨쉬기를 통해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 공간 속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변형을 시도해 본다. <숨쉬기와 숨 헤아리기>는 멀티미디어의 효과를 이용해 관객의 시각을 다각도로 넓혀주며 우연성의 실험으로 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본다.

VIBE 무용단은 김희진 단장을 중심으로 89년 창단,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보이다가 98년부터는 인천에 연습실을 마련하며 인천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순수민간 단체이다.

**일시** \_ 9월 5일(일) 오후 6시

**티켓** \_ 초대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528-6069



## Beat 타악기 앙상블

타악기 연주는 인류 음악사의 원초일 뿐 아니라, 어떠한 연주에서도 그의 역할과 몫은 매우 크다. 또한 음악적 요소를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매우 중대하지만 실제 느끼는 인식은 다른 파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Beat 타악기 앙상블>의 창단연주회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하나의 윤희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연주되는 곡은 Golliwogg's Cake Walk(드뷔시), The William Tell Overture(로시니), Tom Tom Foolery(알레아벨) 등을 비롯해 비틀즈의 Hey Jude 등이다.

**일시** \_ 9월 15일(수) 오후 7시30분

**티켓** \_ 초대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887-1305



## 아이스트링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이스트링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를 배우는 청소년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다. 합주 공연을 통해 음악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성과 책임감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기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미뉴엣과 피아노협주곡을 비롯해 가곡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영화음악 등도 연주한다.

**일시** \_ 9월 30일(목) 오후 7시30분

**티켓** \_ 초대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812-6691



## 부평문화사랑방 금요상설무대

부평문화사랑방은 9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금요상설무대를 마련한다. 9월 금요상설무대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리여석기타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인천 클라리넷 앙상블>의 세심한 감수성의 음악, 서울퓨전오케스트라 소속 <부니(여성5인조 금관)>의 경쾌한 음악, 그리고 아동극 등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사무소 3층)

**입 장 료** \_ 무료공연(선착순 입장)

**공연문의** \_ 505-5995



공연일시	공연주제	공연팀
9. 3(금) 19:00	금관5중주	부니
9. 10(금) 19:30	클래식 기타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단
9. 17(금) 19:30	아동극	극단 하늘<늑대 피터의 눈물>
9. 24(금) 19:30	클라리넷	인천클라리넷 앙상블

※문학과 음악이 함께 하는『시의 숨결』무대가 9월 18(토)오후 5시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인간다움, 아름다운 삶을 깨우치는 뮤지컬 박달나무 정원



〈박달나무 정원(원제 인간단군)〉은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극단 ‘십년후’의 두 번째 창작 뮤지컬이다. 서사적인 장중함으로 흐르기 쉬운 한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쉽고 경쾌한 구도로 탈바꿈시켰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처럼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한 흐름으로 관객들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타악기 위주의 역동적인 음악과 파워풀한 춤, 절제된 대사에 움직임 위주의 표현, 한국적인 무대 디자인이 볼거리이다.

일시 \_ 9월 22일(수)~26일(일) 오후 4시, 7시30분

티켓 \_ 20,000원 / 15,000원



장소 \_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문의 \_ 극단 십년후 514-2050

김영순 전통자수와 천연염색전

25년 동안 전통자수를 해 온 김영순 씨가 그동안 작업해 온 자수 작품과 천연 염색 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을 연다. 이번 개인전에는 그동안의 작품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순 씨는 1994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래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자수의 맥을 잇고 있으며 현재 (사)한국 자수문화협의회 이사이자 주안문화센터 전통자수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일시 \_ 9월 22일(수)~9월 26일(일)

장소 \_ 주안 갤러리 (부평구 산곡동 소재)

문의 \_ 010-3940-3888

한준희 개인전

한준희의 작업은 삶 속에서 마주치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을 폭로 하는데 있다. 작가는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 지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통해 상호 소통되지 않는 존재와 존재 사이를 끊임없이 호명한다. 작가가 탐색의 도구로 차용하고 있는 미디어의 조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소멸하는 일상의 편리과 충위를 들춰내고 고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실천적 준거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 체계와 가치들이 얼마나 허위적이고 권력적인지 은유적으로 때론 직설적으로 폭로한다.

전시일 \_ 9월 4일(토) ~ 10일(금)

장 소 \_ 연수 갤러리(연수구청 의회동 1층)

문 의 \_ 821-6229



수봉문화회관 놀이마당 상설공연

국악회관 앞쪽에 있는 수봉공원 놀이마당에서는 9월과 10월 일요일마다 주대소리 등 우리지역 무형문화재와 평택농악·북청사자놀음 등 타 지역의 우수한 무형문화재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_ 440-3252

일 시		출 연	지 역
9월 5일 (일)	오후 3시~4시	평택농악	경기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
9월 12일 (일)		범패와작법무	인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9월 19일 (일)		가산오광대	경남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
9월 26일 (일)		주대소리	인천 무형문화재 제5호
10월 3일 (일)		임실필봉농악	전북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10월 10일 (일)		북청사자놀음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10월 17일 (일)		범패와작법무	인천 무형문화재 제10~가호
10월 24일 (일)		수영아류	부산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10월 31일 (일)		강화옹두레질노래	인천 무형문화재 제12호

공연 종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VIBE 무용단 〈송산기와 숲 헤아리기〉 오후 6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528-6069, 017-320-5399		인천여고 에로스 동문 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322-3394, 011-478-3751		이은주 무용단 〈춤이 있는 풍경 2004〉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760-8860, 010-6306-7100	금요예술무대 〈극단 미추홀 인형극-마법사의 괴물 대 모험〉 오후 7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인천 YMCA 〈제 18회 인천청소년음악제〉 오후 6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431-8161, 016-330-7338
12	13	14	15	16	17	18
기릴재창소년 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 오후 4시 /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886-0808 (제 4회 미추홀 현대무용제) 오후 5시 30분 /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초대 / 885-5474, 016-728-9741 극단 세이림 〈솔솔나리 울보공주〉(~16) 평일 11시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3시 /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 일반 8,000원 할인 6,000원 단체 4,000원 / 551-6602~3		인천통계사무소 〈제 10회 통계의 날 기념 제 1회 통계가족음악회〉 오후 7시 30분 /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460-2512 사미추홀아트센터 〈제 5회 내고장사랑 창소년 합마당 축제〉 오후 7시 30분 /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 4,000원 / 518-1511	beat!와 앙상블 〈beat!와! 앙상블 창단 연주회〉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887-1305, 016-9590-0556	인천전문공연단 〈창단 27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010-6366-9440	인천문화가람회 〈2004 인천문화가람회 오후 7시 30분 /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 760-8859, 016-226-8859 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오후 7시 30분 /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 7,000원 5,000원 / 420-2781 금요예술무대 〈제28차 판소리콘서트〉 오후 7시 / 중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파랑새 극단 아동극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19) 오후 2시 4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한때 10,000원 할인 7,000원 011-255-2446



# 틀 속에서 벗어난 자유



다는 열등감과 오기가 발동했다. 그 덕인지 우리 조는 부지런히 움직였고 빠른 진행상황에 일정보다 너무 앞서나간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또 그러했던 결과 평생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만족을 일궈낼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그저 귀찮았던 일에서 평생동안 단 한 번뿐인 경험으로 여기게 된 이유는 이 일에서 평소엔 쉽게 느끼지 못했던 미술 속의 개성, 특별하지 않은 특이함,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이 미술이라는 단어를 두고 형용사를 붙이라면 정말 낡은 단어들이 수식어로 붙기 마련이다. 예쁜, 멋진, 고풍스러운, 고급적인 등등... 이것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철창 같은 틀 안에 갇힌 발상들이라는 걸 사람들은 언제쯤 깨달을까? 결과적으로 몸으로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은 미술에도 자유로움은 인정된다는 것이며 그것도 예술이고 미술이라는 것, 또 형식적인 틀은 작품과 함께 나 자신을 가두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행사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이곳이 미술관이고 이것이 미술이냐고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충고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 내 심정이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온 결과물과 꿈을 키우는 장소가 미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다. 나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쉽게 끝나버린 지금은 준비되지 않은 자세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져가려 했던 내 오만이 부끄러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습격사건’에 참가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을 꼽으라면 나는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로부터의 즐거움이라 말할 것 같다.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그 미술관에서가 아닌, 시끄럽게 떠돌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미를 추구하는 곳에서 관객들의 참여로 내 작품이 아닌 모두의 작품을 만드는 기쁨. 그것을 진정한 기쁨이라 말할 것 같다.

아무리 누군가 나에게 자유로움을 수 백 번 이야기해도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나는 말뿐이 아닌 경험으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비로소 알고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다.

물에 젖은 휴지 조각처럼 무력했던 여름방학 생활을 벗어나게 해 준 것은 친구도 가족도 아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개최된 ‘미술관 습격사건’이라는 공공미술교육 프로젝트였다. 7월 24일, 이 프로젝트의 예비모임. 그날이 나의 방학생활을 180도 변화시켜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첫날엔 내가 채워 나가야 할 벽면의 큰 규모에 놀랐다. 무언가 나를 ‘쿵’하고 누르는 것 같았고, 열심히 해보자는 정신보다는 막막하다는, 진작 포기해야한다는 생각만이 내 머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난 생애 포기란 없었고,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일 하나로 그 좌우명을 잃어버리고 싶진 않았다.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생각보다 모두가 열심히 하였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 나도 질 수 없

글 \_ 윤슬아 (인화여중 2년)

## 악취가 싫어요, 악취 모니터링가구 교육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천의제 21 대기환경분과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악취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로 남동공단 주변, 부평공단 주변 등에 인접한 가구에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매일 악취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악취발생 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일을 위하여 지난 8월 5일, 모니터링에 참가할 20가구를 대상으로 악취 모니터링 요령을 교육하였다

## 지방의제 21 제도화 간담회



현재 전국 250개의 지자체 중에서 2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 21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의제 21이 사회의 보다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있어왔다. 그래서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의제 21 제도화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인천의제와의 간담회에서는 인천의 기초의제 21까지 포함하여, 함께 알기 쉬운 지방의제 21 변환 방향부터 법률화에 대한 우려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지역의 주민, 기업,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하며 역할을 나누어 실천하는 지방의제 21이 지역마다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반목과 논쟁보다는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패러다임이 형성 될 것이다.

## 자연에너지는 고유가 시대를 이기는 지혜



자연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원유 값이 배럴당 40달러를 넘어 50달러에 가까워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석유에너지의 사용은 결국 지구온난화와 직결된다. 지구는 자꾸만 더워지고 있다. 바닷물이 따듯해져서 따듯한 남쪽 바다에서만 잡히던 고기들이 인천에서도 속초에서도 잡히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15% 이상을 자연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자연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하며 특히 인천에서는 자연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풍력발전기, 태양광 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용해왔다. 그 결과를 오는 9월중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어떠한 자연에너지가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에너지 조례를 어떻게 바꾸어야만



# 굿인cheon 굿뉴스

## 영종주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8월 1일부터 영종주민들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 시내쪽으로 진출입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됐다. 2007년 3월까지 영종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북인천영업소를 통행할 경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행료 무료 대상자는 공항신도시 주민들과 영종, 용유, 무의, 잠진, 실미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주민들로 이들은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북인천영업소에 제시하면 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2)

## 공항철도 인천구간 3개역 신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인천구간에 3개 역이 추가로 지어진다. 우리시는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525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 공항철도 인천구간에 용유·영종·청라역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

이에따라 공항철도 역사는 용유~공항1~공항2~공항배후도시~영종~청라~경서~굴현~김포공항 등 기존 6개 역에서 9개 역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1년 3월 착공된 공항철도는 오는 2007년 3월 1단계로 용유~김포공항 구간의 40.3km가 개통되고 2009년 12월까지의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의 20.7km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0)

## 외국인 학교 설립 MOU 체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6일 영국의 사립학교인 노드앵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Nord Anglia Education Group)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그룹은 지난 7월 7일 2,000만불(약 230억원)을 투자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생수 약 2,000명 규모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투자意向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그룹은 영국 내에 11개의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를린, 부다페스트, 모스크바, 프라하, 상하이, 호치민 등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에 10개의 국제학교를 운영 중이다.

영국과 세계 각국에 소재한 이들 학교 졸업생 중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 대학 진학률은 평균 4.5%이고, 미국 동부지역의 명문대학(아이비 리그) 진학률은

## 인천시대표단 중국 대련시 등 방문 ‘꿈의 항해’ 인천 상징물 제막



김동기 행정부시장과 신영은 시의회 부의장 등 우리시 일행은 지난 8월 5일 대련시를 방문했다. 김 부시장은 대련시 쌍량충 부시장과 접견을 갖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3회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에 참석해 줄 것을 제의하고 대련에 있는 인천기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에는 대련시 샤더런 시장을 만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해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항공, 카페리 등 두 도시를 잇는 교통의 증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성해공원에서 열린 ‘우호결연 1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해 우리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한편 김 부시장 일행은 8월 6일에 자매도시인 일본 키타큐슈시로 건너가 매년 정례행사로 개최되는 왓쇼이 백만여름 축제에 참여했다. 쓰에요시 키타큐슈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상호파견 등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며 두 도시간의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제의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과 신영은 시의회 부의장 등 우리시 일행은 지난 8월 5일 대련시를 방문했다. 김 부시장은 대련시 쌍량충 부시장과 접견을 갖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3회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에 참석해 줄 것을 제의하고 대련에 있는 인천기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에는 대련시 샤더런 시장을 만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해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6.5%로 이들 학교의 졸업생중 평균 11%가 세계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문의 \_ 경제자유구역청 (453-7442)

## 클린신고센터 투자기관까지 확대

우리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Clean) 신고센터를 지난 2003년 1월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편의 도모를 위해 공사·공단 등 시 투자기관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서는 클린신고센터를 시본청(감사관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 및 군·구(기획감사실) 등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 인천전문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인천터미널, 인천의료원등 10개 사업소 및 시 투자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클린신고센터는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각종 부조리 유혹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풍토 조성으로 공직내부의 자정운동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문의 \_ 시 감사관실 (440-3137)

## 주민제안 쌈지 주차장 만든다



우리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연차 사업으로 1988억원을 투자해 1개동당 10개의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메달리스트 박경모·유승민 인천의 건아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건 박경모 선수와 유승민 선수는 자랑스러운 인천의 건아들이다.

양궁 남자단체전에서 10점 골드 화살을 쏘며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이 된 박경모 선수와 남자팀 양궁감독인 서거원 감독은 계양구청 소속이다.

또한 철옹성처럼 느껴졌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며 16년 만에 탁구 남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따온 국민에게 기쁨을 준 ‘탁구 신동’ 유승민 선수는 강화군 화점면 이강리에 사는 ‘강화도령’이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시책사업을 전국 최초의 혁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주민제안 참여 방식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가 주차장 제안서를 각 군·구·동사무소를 통해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주민제안 대상지를 현장 실사 후 중기 지방재정계획 승인 및 투·융자 심사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31일 까지 총 67건의 주민제안 주차장을 신청 받았으며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현장 조사를 마친바 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주민제안 주차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을 2005년 우선순위에 사업으로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소로서 주차장 시설이 극히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방침이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723)

## 디자인산업 육성에 팔걸는다

우리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역 내 기업의 가치창출과 도시경쟁력의 최종 결정요소로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학·연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디자인산업 육성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자인산업을 육성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 인천에 국방벤처센터 세운다



우리시와 국방품질관리소, 송도테크노파크는 7월 2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 국방벤처센터의 설립과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국방관련 중소기업 발굴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인천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품질관리를 운

영·주관하며,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주요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벤처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접목해 부품국산화 촉진을 통한 외화 절감과 민·군 겸용 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국방 분야 맞춤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송도테크노파크 생산동(2,3층 1,430평)에 위치할 예정이며, 국방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중소기업 30~40개 업체를 선정해 10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입주업체는 주로 인천지역의 기반산업인 기계 및 금속, 전자 및 통신 분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국방벤처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 지원은 물론 국방 분야 특화된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지원으로 부품국산화, 무기 및 비 무기 체계에 대한 업체 자체 개발 성능개선 및 개량 정보, 법률·세무·자료지원·컨설팅지원 등 기술 및 경영지원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토록 육성하여 국방부가 5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므로 중소기업이 군납 시장을 발판으로 크게 도약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방벤처센터의 개소로 최소 연 1,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송도 테크노파크에 발전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송도 테크노파크단지 내의 생산기술연구원, 생물실용화 센터, 인천대 미래관, 인하대 산학협력관 등 첨단 IT, 신소재 산업 등 지식 정보 산업단지와 집적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432)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안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우수한 디자인기업을 발굴, 정책·경제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하는 한편,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내 및 국제적 디자인

산업 교류를 위해 '산업디자인 전람회' 및 '국제디자인 페어전' 등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오는 10월14일께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2004 인천학생 디자인경진대회'를 열

고, 11월에는 일본과 영국 및 미국 등 디자인 선진국 7개국 산업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2004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잇달아 개최할 방침이다.

디자인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인천시립전문대학과 함께 정보산업디자인센터(DIC) 건립사업에 나서 오는 200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시와 송도테크노파크, 디자인 전문회사 25개 업체가 참여하며 사업비는 국비 15억원을 포함, 20억원이 소요된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340)

##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부상



인천이 국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정부 산하 4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은 국내 GDP(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이 확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유치기관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다.

이 중 안양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사실상 인천유치가 결정된 상태다. 석유공사는 현재 청사가 비좁아 서둘러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북한 개성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서 인천에 대형 석유 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은 오는 2007년

쯤 송도신도시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

분당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인수기지가 있는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스수급과 공급이 수월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천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 때문이다.

용인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시흥시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송도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83)

##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우리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사업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또는 12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과는 다르게 부양의무자나 소득환산액과 관계

없이 실제 소득만을 가지고 자격요건을 심사해 과거에 부양의무자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007년에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시 간병인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나 관내 자활후견기관에 접수를 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5)

## 인천, 자동차부품 · 물류 중심지로



우리시와 지역 내 기업체, 대학 등이 함께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산업 집합체

(클러스터) 구성 사업'과 '동북아 물류혁신 집합체 구성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사업에는 3년의 사업기간 동안 한 해에 23억원씩 모두 69억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자동차부품산업 집합체 구성사업은 송도테크노파크와 인천대·인하대, 재영솔루텍(주) 등 8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동차 관련업체가 많은 인천의 특성을 살려 관련 업체와 기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기술 교류·개발의 거점을 만들며, 관련 인력과 첨단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국고지원을 포함해 13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혁신 집합체 구성사업은 인천대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14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물류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키우며, 관련 정보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모두 12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040)

## 의 정 소 식

### 박승숙 의장 의장협 부회장 · 김성숙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박승숙 의장



김성숙운영위원장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5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11기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시·도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간부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성숙 운영위원장은 7월 29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서울시의회 정병인 운영위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인천시의회 김성숙 위원장 등 4명을 부회장에 선출했다.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 전철 내리니 버스정류장이 코앞이네



경인전철 주안역 광장에 환승정류장이 설치됐다. 우리시는 주안역 남쪽 광장에 전철과의 환승정류장을 만들어 41-1번과 63번, 65번, 65-1번 등 4개 버스와 1개 지선버스(마을버스 511번) 54대가 총 988회 운행하며 이곳에 정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안역 지하역사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환승정류장 이용이 가능해져 버스를 타기 위해 200m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우리시는 환승정류장 설치와 함께 노선 운행시간이 3시간 가량 걸리는 13·22·28·41·15번 등 5개 시내버스는 주안역을 중심으로 각각 2개 노선씩으로 분할해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택시 30대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자가용 차량은 광장 서쪽 일방통행로로 진입한 뒤 주·정차 없이 바로 P턴하도록 하는 등 일반 차량들의 광장 내 주·정차를 금지했다.

※ 옛 시민회관 → 주안역

- ① 자가용 : 주안역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서측 소공원 일방통행로를 이용하여 P턴
- ② 택 시 : 주안역 삼거리에서 직진하여 택시정류장을 경유하여 P턴 또는 택시정류장 대기

※ 옛 법원지하차도 → 주안역

- ③ 자가용 : 직진하여 주안역 서측 소공원 일방통행로 이용하여 P턴
- ④ 택 시 : 택시정류장을 경유하여 P턴 또는 대기

| 노 선 이 나 뉜 버 스 |

■ 5번 → 5번, 5-1번

노선	출발점	주요 경유지	종점	하루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행 차량 대수
5번	가좌범양 APT	가좌사거리~인천의료원~도화오거리~제물포역~송림로터리~인천제철~화수사거리~만석동~동일방직~만석고가교(돌아올때 송월동)~인천역~신흥로터리~송의로터리(돌아올때 시민공원~중앙극장)	주안역	100회	12분	10대
5-1번	주안역 환승정류장	시민공원~귀빈예식장~재흥시장~신기사거리~용납사거리~인하대정문~대우전자	삼원 자동차엽	126회	8분	7대

■ 13번 → 13번, 13-1번

노선	출발점	주요 경유지	종점	하루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행 차량 대수
13번	원당지구	불로동~백석동~검암2지구~서인천고~연희사거리~서구청~가정오거리~신흥초교~석남시장~가좌인터체인지~영창약기~인천의료원~재능대학~송림로터리~인천대~제물포역~도화오거리~동원아파트~대우차영업소앞~주안역 (돌아올 때 시민공원~제일시장)	주안역	114회	9분	19대
13-1번	주안역	옛 강원연탄앞~옛 법원앞~석바위시장~석바위사거리~간석오거리~희망백화점~시청~석천초교~구산사거리~구월시장~남동경찰서~종합터미널~인천향교~학익고가교~인하대후문~용납사거리~학익사거리 (돌아올 때 시민공원~경인상가)	인하대 후문	108회	11분	12대

■ 22번 → 22번, 22-1번

노선	출발점	주요 경유지	종점	하루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행 차량 대수
22번	주안역	(돌아올 때 시민공원~제일시장) 수봉공원~송의로터리~동인천역~화평동~송현동~가좌공구상가~목재단지~율도입구	원창동	96회	11~12분	8대
22-1번	시흥시 은행동	운연동~인천대공원~남동구청~장수동~문성여상~모래내시장~시청~길병원~종합터미널~신기사거리~제일시장	주안역	99회	10~11분	11대

■ 28번 → 28번, 28-1번

노선	출발점	주요 경유지	종점	하루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행 차량 대수
28번	주안역	시민공원~인천기계공고~용일사거리~신기사거리~승기사거리~인천고가교~석바위사거리~옛 법원고가~주안북부역~5·6공단~공단본부~가좌사거리~범양아파트~거북시장~성민병원~가정오거리~심곡동~공무원연수원~공촌사거리~서해아파트(돌아올 때 서인천고가교~서구보건소)	검암동	132회	7~8분	20대
28-1번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인하대병원~신흥로터리~중구청~인천역~송월동~만석비취~만석부두~화수사거리~화도진공원~화평동~동인천역~배다리~도원역~남구청~독쟁이~신기사거리~승기사거리~옛 법원고가교 사거리(돌아올 때 시민공원~재흥시장)	주안역	125회	8~9분	16대

■ 41번 → 41번, 41-1번

노선	출발점	주요 경유지	종점	하루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행 차량 대수
41번	율도	석남동 옛길~인천의료원~재능대학~송림로터리~미림극장~동인천역~신흥로터리~독쟁이고가교~용일사거리(돌아올 때 동서우유~인하대후문~용현시장)	주안역	216회	5분	30대
41-1번	주안역 (환승정류장)	석암초교~옛 법원앞~석바위~시청후문~길병원~한미은행~종합문예회관(돌아올 때 농산물시장~남동경찰서~길병원)	종합터미널	192회	5~6분	8대

■ 65번 → 65번, 65-1번

노선	출발점	주요 경유지	종점	하루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행 차량 대수
65번	남동공단 (동막역)	남동공단~풍림아파트~길병원부지~유천아파트~문남마을~용담마을~청학공고~문학터널~신기사거리~교보빌딩	주안역 환승정류장	41회	25분	4대
65-1번	옥련동(한솔프라자역국)	축현초교~송도시장~청학아파트~문학터널~신기사거리~교보빌딩	주안역 환승정류장	57회	18~19분	3대



#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인천책30cm서가운동’은 소수의 엘리트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다. 인천을 알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할 운동이다. 민들레 흩씨처럼 척박한 인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 것이다.

동양 최대의 갑문을 갖춘 항구와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은 분명 매력적인 도시다. 더구나 인천은 전국 최초로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패기만만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적 시원을 간직한 단군 성지가 있고, 개항과 함께 근대화의 의미 있는 시발점을 마련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도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인천의 모습에 대해서는 당혹감이 앞선다. 실상 우리들이 가진 인천에 대한 정보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까닭이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탓에 인천에 살면서도 막상 이거다 하고 말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다. 외지에서 인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경우에는 낯설음이 더 오래 지속되어 그 간극을 메우는데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학생들과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답사를 가려해도 인천보다 서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낯설음에 대한 자기방어일 것이다. ‘사랑하기에 알아야겠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천에 대해 조목조목 알고 싶은 그동안의 갈증은 우리 인천시민에게 자못 큰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인천책30cm서가운동’을 잉태한 셈이다. 이 운동은 작년 말부터 인천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인천에 있는 모든 기관과 서점의 서가에 최소한 30cm정도의 공간은 인천에 관해 다룬 책을 꽂아 둬으로써 시민들이 인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30cm는 인천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절박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책은 멀리 있다. 인천책이 시민에게 좀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선호되었던 두껍고 화려한 장정의 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지만 휴대하기 편한 책들을 테마별로 출간하는 것이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책이다.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천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인천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CD화하는 작업과 인천 관련 문예창작물의 보급도 학생들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폐간된 소중한 인천책을 복원하여 인천의 뿌리를 찾아 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책30cm서가운동’은 소수의 엘리트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다. 인천책을 도서관과 서점에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는 10여분의 시민실천단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인천을 알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할 운동이다. 민들레흩씨처럼 척박한 인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 것이다.

글 \_ 이승후 (재능대학 교수, 인천책30cm서가운동 실행위원장)

## ■ 인천책 20선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년도	내 용
인천석금	고일	경기문화사	1955	일제강점기 때 인천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민족운동가인 저자가 생생하게 기록한 인천의 역사와 인물과 문화
향토인천의 안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희강	광명사	1959	유명한 서예가이자 인천박물관장을 역임한 저자가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출간한 인천 문화재 안내서
개항과 양관역정	최성연	경기문화사	1959	시조시인인 저자가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인천근대사와 깊이 연관된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살핀 책
인천 한 세기 -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	신태범	홍성사	1982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활동했던 저자가 일제강점기시대 이후 몸소 겪었던 생생한 인천의 생활사와 풍속
인천지지	이훈익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1987	재야향토사학자인 이훈익 옹이 평생을 바쳐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들려주는 인천 박물관지
강화도	이형구	대원사	1994	계속 출간되고 있는 국토종합박물관인 강화도에 대한 책 중에서 사진과 함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개항의 선구지 인천	이성구	참글사	1997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저자가 인천 역사에서 진취적인 요소들을 찾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책
온가족이 함께 읽는 인천향토사	최근식 · 최임순	우리교육	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대중적으로 소개해 인기를 끌었던 책
인천개화백경	김양수	화인재	1999	지역 문화계 원로인 저자가 직접 겪고 찾아낸 인천항 개항 이후 인천의 사회상을 담은 책
간추린 인천사	오종원 외	인천학연구소	1999	새로운 사진, 문헌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별로 재구성한 인천 대중역사서
인천 지역의 이해 -정치, 행정, 사회운동	정일섭 외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인천 지역의 정치와 행정, 사회운동에 대해 탐색한 책
황해에 부는 바람 -최원식 인천론집	최원식	다인아트	2000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저자가 꾸준히 천착해온 인천의 정체성과 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한 글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인천관광길라잡이	〈굿모닝인천〉편집팀	인천광역시	2000	예쁜 화보와 지도, 상콤한 안내문과 함께 인천 구석구석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안내해주는 여행안내서
격동 한 세기, 인천이야기 (전2권)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다인아트	2001	〈경인일보〉 기자들이 주제별로 흥미로운 사진과 함께 발로 뛰어 재구성한 인천근대사의 파노라마
2001인천재발견 (상 · 하권)	공동집필	인천발전연구원	2001	인천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기획을 통해 재발견한 인천의 역사문화, 시민사회, 공간계획, 지역경제의 제상
월미도이야기 -한국 근 · 현대사의 현장	김윤식 · 조우성	가천문화재단	2002	부제처럼 한국 근 · 현대사의 길목에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겪었던 월미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자료들
인천문화를 찾아서	이희환	다인아트	2003	젊은 지역연구자가 찾아본 인천지역 근대문화의 전개과정과 오늘 인천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
월미도가 달고리라구? -인천땅이름이야기	최재용	다인아트	2003	언어학을 전공한 신문기자가 취재하면서 틈틈이 기록하고 연구했던 인천땅이름에 얽힌 새롭고 재미있는 해석들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2002년 출간된 전6권의 〈인천광역시사〉의 역사 부분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집필한 책
문화로 바라보는 인천	해반문화포럼	해반문화사랑회	2004	민간단체인 해반문화사랑회에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해반문화포럼〉의 다양한 주제들

※ 학술적 목적의 논문집이나 자료집, 연속간행물 그리고 예술작품집과 특정주제에 국한된 서적 등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 환경사랑은 잘 버리기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람은 무엇을 남길까? 예전에는 ‘이름 석자’가 정답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에 널린 쓰레기가 아닐까 싶다. 어딜 가나 넘치는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렇게 버리다간 좁은 우리 땅덩어리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폐기물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등 쓰레기처리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려 불이익(과태료 5만원~10만원)을 당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 일반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요령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일반쓰레기**는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요령이 필요하다. 음식찌꺼기를 비롯해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구멍을 뚫은 일반비닐에 담았다가 규격봉투에 담는다. 퇴비로 이용하고 싶은 가정에서는 흙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음식쓰레기를 묻어 썩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 튀김기름을 버릴때 신문지 등에 기름을 흡수시킨 뒤 버리면 효과적이며, 깨진 유리, 형광등, 스티로폼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작게 만들어 규격봉투에 담으면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재활용쓰레기**는 분류하여 모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문지는 비닐코팅된 것, 광고 전단지는 뺀 뒤 쌓아두었다가 처리하며, 젖은 신문은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유팩 등 종이팩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후 말려서 펼치면 효과적이다. 책·공책·상자류 등은 비닐코팅된 표지와 스프링, 테이프, 핀 등을 떼어내고 함께 묶는다. 캔의 경우 속을 행군 뒤 발로 밟아 부피를 작게 만들어 모아두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을 경우 따로 모은다. 또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 모아두면 된다.

철사, 철판 등의 고철류와 알루미늄창틀, 스테인리스 그릇 등은 봉투에 넣어 모으고 페인트병, 합성수지용기 등 플라스틱류는 뚜껑을 제거한 뒤 속을 행구고 상표가 찍힌 비닐류 라벨은 떼어낸 뒤 모아두어 각 구청별 수거요일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내어두면 된다. 특히 조그만 가전제품류 등은 각자 분해하여 플라스틱, 고철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된다.

**대형쓰레기**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기타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한 뒤 별도의 수거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날에 내놓는다.

이젠 주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자신부터 개선해 보면 어떨까? 집 주변 쓰레기를 보면 먼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시와 구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주부들조차도 먼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탓이라는 말을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정해진 음식물 봉투에 버리게 되면 고양이들의 밥이 됨과 동시에 찌꺼기가 흩어져 미관상 좋지 않고 그 악취는 동네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실시했던 음식물 수거통을 재설시해 주기를 바라는 주부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어진 때 대응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집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어 보자. 한껏 더 뽐내며 의기양양 정확한 재활용으로 인해 보다 더 나은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도심 한 복판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삶을 소중히 꾸려가 보자. 그러면 늘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환경사랑에 발맞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비추어질 것이다.

글 \_ 이현숙 (녹색연합 운영위원) · 사진 \_ 김성환

## 재활용 되는 품목

-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과자, 과일상자류)
- 병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 병.
- 캔류 : 음료용 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 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고철류 :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알루미늄 샷시 등 비철, 철 종류
- 의류 : 면제품류(순모양복, 내의 등),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류 등)
-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간장 식용유병, 요구르트병, 삼푸,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 상자(박스), 맥주·소주·콜라 음료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머리빗 등



##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 종이류 : 비닐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 병류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 의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
-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 등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등 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 등, 과자·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폼, 1회용품 볼펜 등 필기구, 플라스틱과 고철·철사종류가 합성되어있는 제품류 등

## 각 구별 쓰레기 배출시간

- |                     |                 |                    |                    |
|---------------------|-----------------|--------------------|--------------------|
| • 중 구 : 20시~다음날 02시 | • 동 구 : 20시~24시 | • 남 구 : 21시~다음날06시 | • 연수구 : 일몰 후~일출 전  |
| • 남동구 : 일몰 후~다음날04시 | • 부평구 : 19시~24시 | • 계양구 : 20시~다음날06시 | • 서 구 : 20시~다음날06시 |



# 너무 큰 중국, 배울 것도 많네요

지난 1월 중국 천진시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 청소년 국제교류단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천진시 홈스테이 가정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천시청소년웹진 M●●의 기자로 이번 중국과의 교류에 참가했습니다.

8월 6일 아침 7시. 조금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늦지 않은 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고 아직은 어색한 단원들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낯선 언어로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 때문인지 제각각인 나이와 학교에도 불구하고 금새 친해져 어느새 비행기 안이 소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약 2시간여의 비행 끝에 도착한 천진공항에는 지난 1월 인술교사이셨던 천진 신화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통역하시는 분과 함께 나와 계셨습니다. 특히 신화중·고등학교는 저희 청소년 국제교류단을 위해 새롭게 구입한 버스를 4일 동안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작한 차여서 그랬는지 외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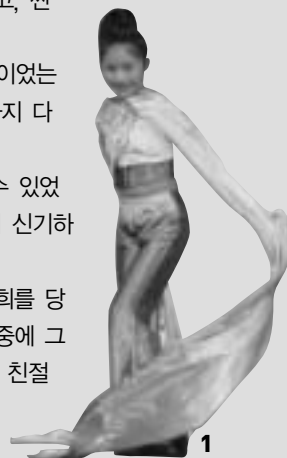
## 까마귀 혀 요리에 경악

호텔에서 짐을 풀 뒤의 점심식사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집의 탕수육이나 자장면에서 조금만 더 발전한 음식들을 기대했던 저희들에게 돌아온 것은 말 그대로 기름요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맵고, 짭 입맛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약간은 느끼한 입맛이 저희에게는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중국 관광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전통인형을 제작하는 곳이었는데요, 작고 귀여운 고양이 인형에서부터 가격이 중국 화폐로 1500원대를 넘어가는 정말 고가의 인형까지 다양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식물, 동물모형, 수족관까지 세 가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규모에도 감탄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식물이나 동물 모형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시에서 마련해주신 환영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많은 음식들이 나와서 저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가장 놀랐고도 경악했던 음식은 ‘까마귀 혀’였는데, 해삼인줄 알고 먹었던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간 요리라든가 동물의 발 요리가 나왔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권해주시는 바람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요리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만리장성으로 향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해서 한참을 걸었는데도 뭔가 도착했다는 표시조차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무더워서 저는 결국 한 개의 문까지도 가지 못한 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1



2

3

1·2 신화중학교 학생들의 환영 공연 3 기념품으로 뱃지를 달아주신 신화중학교 교장 선생님 4 만리장성 앞에서 기념촬영 5 홈스테이 파트너 강쯔어양(사진 왼쪽)과 함께 6 만리장성에 오르기전(오른쪽이 필자)

## 깊은 정을 나눈 홈스테이

점심식사를 한 후 드디어 이틀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될 홈스테이 가정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이 저번에 한국으로 홈스테이를 왔던 분들이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강 쑤어 양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그런지 무척 어색했는데 학교에서 직접 준비해주신 공연을 보고 그 공연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점점 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강 쑤어 양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 빨리 친해질 겸 집 아래에서 탁구를 쳤는데 아버지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접 만드신 각종 음식들로 푸짐한 저녁을 차려 주셨는데 저녁식사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쇼핑거리로 유명한 천진시의 ‘난징거리’에 갔습니다. 특히나 그 거리에는 중국의 옛날 동전모형이 거리 바닥에 박혀있는데, 그 돈을 밟으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저도 몇 번이나 밟아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홈스테이를 하는 가족과 함께 베이징에 갔습니다. 천안문에 갔는데 엄청난 인파에 한번, 정 중앙으로 3시간동안 열심히 걸었지만 끝이 나지 않아 결국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컸던 천안문 규모에 한번, 청소년 국제 교류단원 20명중 7명이나 만날 수 있었던 멋진 우연에 한번 모두 3번이나 놀랐습니다. 천안문은 차를 타고 3일 동안 구경해야 다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커서 뭘 봐도 ‘크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날은 그 주변지역의 쇼핑타운을 둘러보고 천안문 광장에서 홈스테이 친구들과 중국 역사라든가 문화유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영어실력이 좋지 못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같이 땀 흘리고 오랜 시간 같이 걷는 동안 정말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다시 천진으로 가는 기차안에서, 저녁식사로 베이징 오리구이를 먹는 동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즐겁고 유쾌해서 내일 비행기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아쉬운 마지막 날 아침, 신화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최신키의 시설들과 학교의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경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정말 섭섭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교류는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랑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해서인지 더 슬펐습니다. 국제 교류단 단원끼리도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버스안, 비행기 안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4일의 힘든 일정 후에도 뒷풀이를 할 만큼 친해졌습니다.

3박 4일, 결코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동안 홈스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배웠고, 또 그 속에서 사는 중국 청소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라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생각이나 고민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 곳곳에 이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인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 \_ 송인의 (학익여고 1년 · 제4기 청소년 웹진 Moo 학생기자)







## 프로레슬링은 쇼? ...그래도 우린 열광했다

60, 70년대 최고의 인기스포츠는 프로레슬링이었다. 동네에 몇 대 보급되지 않은 TV 앞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김일의 박치기에 환호성을 질렀다. 김일은 언제나 초반에 안토니오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 타이거마스크 등 상대편의 잔인무도한 반칙에 당하지만 막판에 무소불 같은 박치기로 그들을 일거에 거꾸러뜨리는 ‘권선징악 스토리’를 연출했다.

별다른 놀이가 없었던 남자아이들은 방바닥에서 레슬링을 흉내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다. 김일의 박치기, 천규덕의 당수, 여건부의 알밤까기를 비롯해 헤드록, 드롭킥, 코브라 트위스트 등 고난도 기술까지 흉내내곤 했다.

‘레슬링은 쇼’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국내 경기를 거의 볼 수 없게 됐고 이제는 ‘이종격투기’라는 신종 경기에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고 말았다. <鉉>

(위 작은 사진은 60년대 초 인천에서 열린 경기에 앞서 유승원 인천시장이 김일 선수에게 기념 트로피를 전달하는 장면이다.)

##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염박사순대보쌈의 한방보쌈

보쌈이 한약재를 만나 ‘한방보쌈’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한방보쌈은 80kg ~100kg 사이의 1등급 암돼지의 목등심과 삼겹살을 주재료로 선택했다. 여기에 인삼, 팔각향, 녹각, 가시오가피, 계피 등 13가지 한약재에 대파, 생강, 양파, 파뿌리 등 채소를 넣고 두시간 이상 푹 삶아서 기름을 쏙 뺀다. 한약재가 스며든 돼지고기는 특유의 노린내가 사라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며 육질이 쫄쫄하게 된다. 한방보쌈은 주인집 아들인 염인수 씨가 3년 동안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 한의학 고서들을 기초로 돼지와 궁합이 맞는 한약재를 사용해 개발한 음식이다. 일반보쌈을 한 단계 발전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한방보쌈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특허보쌈’이다.

- 한방보쌈 25,000원(대) 20,000원(중) 15,000원(소)
- 계양구 계산동 919
- ☎ 545-7645
- 68석
- P 50대



### 이학면옥의 버섯생불고기



이학면옥 버섯생불고기의 맛은 탁월한 육수맛에서 출발한다. 인공 조미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배, 사과, 파인애플 등 천연과일즙과 야채즙으로 육수를 만든다. 얼리지 않고 얇게 썬 한우 등심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을 함께 넣고 육수를 부어 끓이면 소고기와 버섯이 어우러져 내는 향기가 구수하면서 산뜻하게 피어난다. 엉덩이 등 질긴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질 좋은 생고기를 바로 끓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씹힌다. 버섯생불고기의 맛을 복돋우는 것 중의 하나는 시원한 동치미국물이다. 이학면옥에 가면 사시사철 언제든지 시원한 동치미를 맛볼 수 있다.

- 버섯생불고기 10,000원
- 연수구 연수동 596-34
- ☎ 815-4665
- 560석
- P 100대





# 음~ 술맛 좋네 조상님도 한잔 쭉옥~

우리 선조들은 술을 ‘백약(百藥)의 으뜸’이라고 했을 만큼 즐겼다.

쌀과 누룩을 기본으로 계절마다 제철에 나는 재료를 섞어 정성스럽게 술을 빚었다.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맘때면 집집마다 마을마다 정성 들여 빚은 술을 이웃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속.

오랜 가양(家釀)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우리 토속주에는 맛과 풍류 그리고 분위기가 듬뿍 담겨 있다.

올 추석엔 차례상의 제주(祭酒)로, 손님맞이상의 반주로 우리고장 인천에서 빚은 고향 술을 올리면 어떨까.

## 술 한잔에 인천 역사 녹아 있네 소성주(邵城酒)



술 이름부터 인천의 토박이 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성’이란 신라 경덕왕 때 붙여진 인천의 옛 이름이다. 이 지명의 이름을 브랜드로 붙인 탁주가 바로 ‘소성주’다.

인천탁주 합동제조장(부평구 청천2동)은 지난 90년 전국 탁주업체 처음으로 쌀 막걸리인 ‘소성주’

를 개발해 시장에 내놨다. 인천탁주는 지난 74년 인천지역의 11개 양조장이 합병한 회사로 무려 70년이 넘는 막걸리 제조 역사를 자랑한다.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전통주이자 서민의 술이다.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은 여흥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막걸리를 마셔왔다. 막걸리는 적정한 온도와 숙성기간에 의해 맛이 좌우되는데 최적의 조건에서 발효시켜 생효모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술이 바로 소성주다. 소성주는 효모를 96시간 증식, 배양하고 4~6일이 경과한 뒤 제조한다. 다른 지역에서 나는 막걸리와 달리



달착지근한 맛이 거의 없다. 대신 신맛이 강하며 막걸리의 특성인 감칠맛과 상쾌한 청량미가 잘 어우러진 술이다. 750ml 한병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다.

인천탁주가 현재 생산하는 막걸리는 소성주 외에 조깅데기술, 산더덕술, 누룽지술, 그리고 살균주인 ‘농주(農酒)’와 약주인 ‘설악주’가 있다. 특히 농주는 막걸리를 6개월 이상 장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92년 개발한 술로 이듬해 미국 LA와 시카고의 국제식품쇼까지 출품했으며 94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음료대회 주류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한때 ‘인천의 대표 주(酒)’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인천탁주는 막걸리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소성주’와 함께 조만간 다른 지역 막걸리 애주가들의 입맛에 맞도록 ‘술사랑 향가’를 새로 개발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문의 \_ 518-7111)

술 한잔에 보약 한첩 담겨 있네

## 화삼 가시오가피 술(刺五加皮酒)



인삼의 고장 강화도는 그 명성 그대로 원래 인삼 막걸리가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가피술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강화에서 만들어진 덕분에 오가피술이 강화를 대표하는 술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낙엽활엽관목으로 인삼, 두릅과 같은 오가과에 속하는 오가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지난 67년 구 소련 아카데미의 학자였던 브레크만박사에 의해 가시오가피의 생약이 가지는 효능이 세계 약학학회에 발표되면서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논문에서 가시오가피가 고려인삼을 능가하는 약효가 있다고 밝혔으며 생체기관의 전반적 기능을 증대시켜 주고 동맥혈압을 정상화시키며, 증가된 혈당치를 감소시키는 작용 등을 한다고 했다.

최근에 발표된 오가피 효능을 보면 백혈병(항암) 억제 작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전립선 활성화와 정낭 증대 효과, 정력 증대 그리고 학습력 향상 작용을 하며 이를 약술로 마시면 만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나다.

강화 가시오가피 술을 만드는 곳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에 자리 잡은 화삼주조이다. 가시오가피 술은 화삼주조의 최경식 사장이 개발했다. 그는 97년까지 상주에서 탁주공장을 운영했다. 그 때 무주 장계에서 가시오가피 농장을 하고 있던 한 선배가 ‘가시오가피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 왔다. 최 사장은 우선 가시오가피를 보리차와 함께 끓여서 음료수로 이용해 보았다. 불과 4일 정도 마셨는데





생각보다 소화가 아주 잘 되더라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최사장은 가시오가피의 효능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오가피가 ‘만병을 치료하는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오가피를 이용해 술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오가피 엑기스 7~8%에 옥분과 전분, 땀쌀을 비법의 비율로 섞어 술을 빚었다. 이렇게 빚은 술을 약 15일 정도 발효과정을 거쳐 마시기에 딱 알맞은 알코올 농도 13%로, 인삼이나 녹용에 뒤지지 않는 건강주 가시오가피 술로 탄생시켰다.

2000년 4월 화삼주조가 가시오가피술을 출시할 즈음 때 마침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일부 축구선수들이 오가피엑기스를 복용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가시오가피술은 하루아침에 인기상품이 되었다. 그렇게 되자 술도 가들은 너도나도 오가피술을 빚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40여 군데서 오가피를 이용한 술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화삼주조의 가시오가피술의 맛과 향에 견주기에는 역부족. 화삼주조의 가시오가피 술을 한번 입에 대본 사람들은 이 술만 찾게 된다는 것이 주당들의 공론이다. 화삼주조는 첫 병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원조’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술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375ml 한 병의 소매가는 2,000원이며 다섯 병들이 선물케이스는 13,000원이다. (문의 \_ 937-2677)



## 술 한잔에 신선 되네 칠선주(七仙酒)

‘칠선주’라는 이름의 인천전통주는 이미 2백년 전부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민속주로 궁중에 진상했던 술이다. <규합총서>를 비롯해 <산림경제><양주방> 등 문헌에도 1777년 조선조 제22대 정조 원년에 빚었다’고 되어 있으니 적어도 2백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전통주인 셈이다.

칠선주에는 주재료인 땀쌀과 찹쌀 외에도 인삼, 구기자, 당귀, 산수유, 더덕, 갈근, 감초 등 일곱가지 약재가 들어간다. 일곱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다 ‘이 술을 즐겨 마시면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는 신선이 된다’고 믿어 칠선주(七仙酒)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일제 때 쌀 공출령으로 맥이 끊겼던 칠선주는 1990년부터 <양주방>에 나와있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옛맛 그대로 다시 복원돼 1990년부터 본격적인 제조에 들어갔다. 하지만 1996년 8월 사정으로 제조를 중단했다가 7년만인 지난 2003년 11월에 강화군 길상면 길상초등학교 뒤편에 ‘마니산술도가’라는 술공장을 열고 다시 술을 빚고 있다.

칠선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6도주’로 싱겁지도 독하지도 않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전통 명약주답게 각종 문헌은 칠선주를 가리켜 ‘위장 및 간장을 보호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속쓰림과 갈증이 없으며 독특한 감칠맛이 있다’고 평한다.



쌀을 씻어 불린 뒤 스팀에 쪄 식힌 다음 누룩과 버무려 15일 동안 발효시키고 두차례에 걸쳐 술을 짜내기까지 술 한병이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여일 정도. 입맛을 현혹시키는 감미료를 단 한방울도 쓰지 않는 재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칠선주는 일명 남자술이라 불리는 초록색병(플러스)과 여자술인 노란색병(마이너스) 두가지로 시판된다. 두 술의 재료는 같지만 맛은 약간 다르다. 옛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낸 남자술은 전통적인 약주맛을 그리워하는 노인들이나 중장년층이 즐길만한 술인 반면 여자술로 통하는 ‘마이너스’는 여성들이나 젊은 층의 기호에 맞도록 감초를 약간 더 첨가했다. 달작지근한 맛이 나기에 목구멍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간다. 360ml 한병의 소비자가가는 3,000원이다. (문의 \_ 937-7754)

글 \_ 유동현

## 전통주 제대로 음미하기

서양술은 먹기 전에 코로 향을 맡지만 우리술은 마시고 난 후 입안에 남은 향으로 음미하는 술이다. 잘 익은 우리술엔 단맛, 신맛, 떼은 맛, 구수한 맛, 쓴맛, 매운맛 등 6가지 맛이 녹아 있다고 한다. 이 맛들이 두드러지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입안에 한동안 여운을 남기는 술이 좋은 술이다.

발효주라는 점에서 서양의 와인과 유사한 전통약주는 와인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색깔과 맛, 향을 함께 음미하면 한결 운치가 있다. 전통 약주는 과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술이라도 사과나 수박 같은 과일향이 나는 것이 특징. 누룩의 밀기를 성분이 발효되어 생성하는 향기로 향이 강할수록 진한 맛이 난다. 약주는 부재료에 따라 색깔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황금색을 띠는 술이 많은데 호박빛에서 짙은 담갈색까지 농도가 다양하다. 흔히 색이 옅을수록 담백하며 진할수록 맛도 진하고 오래된 술로 보면 무방하다. 전통 약주는 섭씨 8도로 차게 해서 먹는 것이 보통이다.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차게, 다소 무거운 맛과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덜 차게 마신다. 병을 처음 개봉할 땐 마개를 열자마자 술을 따르지 말고 잠시 기다려 병 속에 차 있던 미량의 가스를 날아가게 한 다음 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즐거봐~ 도전해봐~ 뭐든 할 수 있거든

갈 곳이 없다, 놀 꺼리가 없다, 할 것이 없다...

고민도 많고 불멘소리도 자주 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놀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탄생했다.

문학유스센터다.



사이언스스쿨



사이버실



단소교실

무더운 여름,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런데 문학경기장 일대는 아이들의 움직임으로 소란스럽다. 축구경기도, 야구경기도 없는 날인데 무슨 일일까? 아이들은 문학경기장 2번 게이트를 지나 주 경기장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아이들이 향한 곳에는 ‘문학유스센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아이들을 따라 들어가 보니 교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연극연습실에서는 연극교실 강좌가 열리고 있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사운드오브뮤직’ 연극을 연습해 발표회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회의실은 방학기간에는 단소교실로 활용된다. ‘테테요~무지~(?)’ 알아듣기 힘든 말을 입으로 읊조리며 단소연습을 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난다. 한편 국악연습실에서는 팽과리 소리에 맞춰 ‘딩더쿵딩덕’ 신명나는 장구소리가 흘러나오고 양악연습실에서는 ‘쿵쿵따다 쿵따다’ 하는 드럼의 비트소리가 요란하다. 댄스동아리들의 아지트인 댄스연습실은 오늘은 숲체험단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항상 문이 열려 있는 탁구장과 사이버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려 온 학생들과 엄마들의 대기 장소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달려온 아이도 있고, 탁구장에서 강 스매싱을 날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 그 옆에서 책을 읽는 엄마... 모두들 여유로운 표정이다.

이 교실들은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이다. 인성계발·학습, 현대예술, 전통예술, 연극·뮤지컬 등 4개영역의 20여개 강좌와 청소년 숲체험단, 대한민국 역사탐험대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우리시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라 가능한 일이다.

무료프로그램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특별활동을 이곳에서 할 수도 있고, 뜻있는 친구들과끼리 동아리를 만든 후 이곳에 모여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이다.

바깥으로 나오니 문학경기장 옥외 주차장 옆에 마련돼 있는 인공암벽장에서는 울룩불룩 튀어 나온 돌을 잡고 안간힘을 쓰며 위로, 위로 오르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18m 높이의 인공암벽장에 오른 아이는 정상 정복의 쾌감을 맛본 후 로프에 몸을 맡기고 서서히 땅으로 내려선다. 온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손 발은 발짱게 달아올랐지만 얼굴에는 해냈다는 자신감이 물씬 배어나온다.

주차장을 끼고 돌아 나오면 X 게임장이다. 이곳에선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년들에게 정식으로 다양한 X게임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스릴 넘치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지치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더위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다.

문학유스센터에서는 할 거리, 놀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쏙 들어갈 듯 하다.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들의 복합 공간이니까.

글\_ 정정애 · 사진\_ 김정식



# 1318 ‘네 꿈을 펼쳐라~’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기 위해 인천 역사의 발상지 문학산 일대와 개국의 성지 강화도, 해양과 과학을 탐구 할 수 있는 영종도 등 세 곳에 ‘청소년문화존’을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 갯벌과 역사를 만난다 갯벌생태체험, 자전거 역사기행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강화 갯벌을 몸으로 느껴 보는 갯벌생태체험이 6월과 7월에 강화 갯벌에서 열렸다. 담장 없는 박물관 강화를 자전거로 돌

아보며 역사와 유적을 체험하는 자전거 역사기행이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마련된다.

인천가톨릭청소년회 (833-2010)

## 탐구심 가득, 모험심 뽐낼 과학탐구마당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그리고 탐구심에 가득찬 학생들... 인천과학고등학교와 그 옆의 과학상설전시관에서는 생활과학탐구, 역사와 과학, 과학실험놀이, 과학 공작활동 등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 매달 과학경연대회도 열려 청소년들의 도전, 탐구 정신을 높인다.

인천청소년문화사업단 (434-5711)

## 배우는 게 남는 것 문화아카데미

문학유스센터에서 문화 관련 정규 강좌가 열리고 숲체험단, 역사체험단에서 몸으로 느끼는 문화도 즐겁다. 청소년 자원봉사와 문화공연,



일본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437-1318)

##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전통문화광장

우리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짬뽕공예, 천연염색 등이 도호부청사에서 열린다. 초겨울 김장철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전통김치 만들기 등의 색다른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성산청소년육성재단 (438-4293)



##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테크노스포츠타당

BMX(요기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인공암벽등반 등 모험심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X게임을 제대로 배워 보자. 가을에는 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BMX 인라인 대회도 열릴 예정.

인천가톨릭청소년회 (833-2010)

## 문화의 향기 느껴봐~ 청소년문화광장

댄스 · 힙합 · 연극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 테마축제가 매달 열린다. 9월에는 치어댄스경연, 10월 연극제, 11월 봉사동아리 콘서트와 종합토론회, 폐막제 등이 열릴 계획이다.

인천 YWCA (424-0524)



## 옛 방식으로 배우는 전통음악과 무예 청소년 서당

우리 악기와 소리를 익히는 전통음악 프로그램과 전통 무예를 배우는 강좌가 도호부청사와 향교에서 열린다. 전통 공예와 탈춤교실, 한자학습, 서예교실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된다.

한국청소년인천광역시연맹 (884-0054)



## 자신만만 인천인 되기 인천사랑 캠프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하며 인천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캠프. 내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 것을 직접 기사로 작성해 보는 청소년 역사 기자단도 운영된다.

인천 YMCA (431-8161)

사진\_김정식

# 맨 눈으로 가을 하늘을 보고 싶다

글\_장진호 (푸른세상안과 431-9999)

레이저 시력교정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시력교정술은 라식과 라섹으로 꼽히고 있다. 이 두가지 시력교정술의 차이점은 수술과정에서 각막편을 만드는 과정으로 어떠한 수술이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이크로 라식과 에피라식의 경우는 기존 라식의 각막두께 및 각막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과 라섹수술의 통증 그리고 각막흔탁에 대한 부담감을 효율적으로 예방한 수술 기법으로, 근래 들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막두께만은 안정적이나 도수가 높고 동공크기가 커서 라식수술 후 잔여 각막두께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때 마이크로 라식수술이 적합하다. 마이크로라식은 수술과정은 기존 라식과 비슷하나, 130~160 마이크론을 만드는 기존 라식수술에 비해 80~90 마이크론의 각막절편이 만들어지고 넓은 범위의 레이저 조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충분한 여유분의 각막을 남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근시나 각막두께가 얇은 경우, 그리고 동공이 큰 경우에도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 줄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각막두께가 도수에 비해서 얇을 경우 기존에는 라섹으로 수술을 진행해 왔으나 통증과 늦은 시력회복,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각막흔탁률 및 근시퇴행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도근시에서는 부적합하다. 에피라식은 기존 라섹수술과 치료과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라섹의 경우 각막상피를 분리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수술 후 각막 상피세포의 80% 이상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피라식은 이러한 약물 사용이 전혀 없이 에피케라툼이라는 절삭기로 50마이크론 정도의 각막편을 만들기 때문에 각막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라섹의 통증과 각막흔탁, 그리고 근시로의 퇴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수술 기법이다.

마이크로라식과 에피라식의 경우 기존 라식과 라섹의 각막편 형성에 따른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해결한 수술 기법이라고 표현한다면 웨이브프론트 기술의 경우는 기존 레이저 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수술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막지형도 검사나 혹은 ORB scan 등으로 각막의 굴절이상 수치만을 측정하여 수술하였던 것에 반해서 웨이브프론트 레이저의 경우 웨이브스캔이라는 검사 장비를 통해서 각막뿐만 아니라 수정체, 유리체 등의 굴절이상 수치까지도 측정을 함으로써 기존 라식수술 후에 불편함으로 얘기되고 있는 야간의 빛번짐 현상과 시력저하 현상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결국 웨이브프론트 레이저 등장은 라식수술로 단순히 안경이나 렌즈를 벗고 잘 보이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좀 더 선명하고 우수한 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수술법이 선보인 뒤 라식수술 중 시력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면밀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꿈의 교정시력 1.0이상의 목표 달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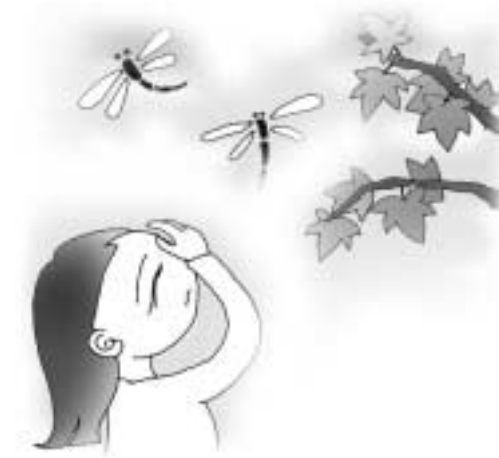
국내에서 시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력교정술 중에서 나에게 맞는 수술은 분명히 있다.

이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어 수술 후 최상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시력교정술을 진행하고 있는 안과병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환자자와 병원간에 믿음과 신뢰가 형성될 때 좋은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마이크로 라식** : 각막두께는 안정적이나 동공크기가 크고, 도수가 높을 때

**에피라식** : 각막두께가 얇아 라식이 불가능하여 라섹수술을 해야하나, 통증은 적고 빠른 시력회복을 원할 때

**웨이브프론트 시스템** : 레이저 교정술 후에 질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원할 때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 오라비... 아주버님... 부를수록 정감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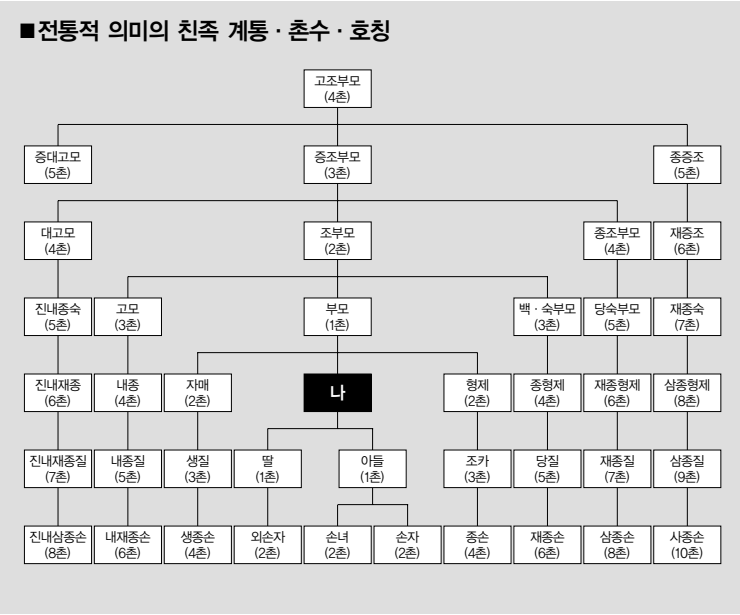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오랜만에 만난 친척끼리 촌수계산을 잘못하거나 호칭 때문에 난처해질 경우가 있다.  
바뀌 생각하면 명절은 친족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호칭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산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친족(親族)이란** \_ 혈족과 인척(姻戚)을 합친 개념이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이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 집단을 말한다.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모계 구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 쪽, 즉 시집과 처가 모두 4촌까지다. 전통적 의미의 친족은 고조(高祖)부모를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일컫는다.

**촌수(寸數)** \_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한 숫자 체계다. 우리나라처럼 친족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대나무의 마디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예가 있다.



**촌수계산** \_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마디(1촌)로 계산한다. 나와 부모 사이는 한마디로 1촌 관계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 이므로 나와 부모간의 1촌,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해 2촌이다.  
외가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외삼촌이나 이모의 경우 나와 3촌이며, 그의 자식은 4촌 관계다. 이모의 남편을 부를 때는 이모부(이숙), 자식은 이종(姨從)사촌형(동생)으로 부른다. 외삼촌(외숙)의 부인은 외숙모(표숙모)라 호칭하며, 자식은 나와 외종 관계로 외사촌형(동생)이라고 부른다.



**친족의 호칭과 촌수** \_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촌수를 친족 호칭으로 대응하는 범위는 3~8촌이다. 친족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가 8촌인 이유는 조상의 제사를 고조까지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을 접촉이 잦았기 때문이다.  
촌수 가운데 짝수는 나와 같은 항렬이고, 홀수는 나의 윗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래 항렬(조카)이다. 촌수는 친소 관계의 잣대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세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령 5촌은 당질(조카)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 친소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를 조합해 다양한 친족 호칭이 발달했다.

## 혼동하기 쉬운 친족호칭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대표적인 호칭으로 '매형(妹兄)'을 꼽는다. 누나의 남편을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매형' 대신 '자형(姉兄)' 또는 '새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는 '매제(妹弟)'라고 부르고, 직접 부를 때는 '서방', 친할 때는 '자네'라고 부르면 된다.  
결혼한 시동생은 '서방님' '큰 서방님' 따위로 불러야지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실례. '삼촌'은 어린아이가 부를 때 쓰는 호칭이며, 결혼 안한 시동생에게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남편의 형님은 '아주버님',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시숙'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는 '큰 아버지(어머니)' '둘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으로 부른다.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는 '외숙(外叔)' '외삼촌' '외숙모(外叔母)', 자녀를 둔 딸을 그 남편이나 자녀에게 말할 때는 '에미'라고 부르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할 호칭이다.  
며느리가 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을 말할 때는 '애비'나 '아범', 부모에게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말할 때는 '에미'나 '어멈'이 맞다.



“어떤 안개도 내 길을 덮지 못 한다”

# 화가 조부수



눈물의 시인 박용래의 고향, 백제 땅 부여에 인천 화가 조부수(趙富秀) 씨가 가서 산다. 달빛 같은 박용래 시인과 작은 거인 모습의 조부수 화가는 아무리 보아도 목소리가 다르고 길이 다른데 무슨 물, 어느 언덕이 이곳으로 조 화백을 불러 내렸을까. 한 사람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 삶의 부질없음과 누리는 것의 덧없음을 정지적(靜止的) 언어로” 시를 쓰다 갔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안개도 내 길을 덮지 못 한다”며 오늘 1000호 짜리 캔버스에 역동적으로, 가득 문명의 물감 칠을 하고 있으니. 동력(動力)은 곧 정지(靜止)와 통하는 것일까.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우리를 냉큼 데려간 곳은 작업실이 아니라 강경 젓갈시장. 왜정 때 지은 붉은 벽돌집과 창고 같은 건물들이 낡고 늙은 모습으로 몇 군데 남아 있는 길을 지나 인천에도 없는, 정말 예술처럼 제대로 삭은 젓갈 가게 충남상회 냉장 숙성실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조부수 화백은 그림보다 새우젓, 조개젓, 곤쟁이젓, 뱀땀이젓을 더 신나게 말하고 강경 땅에 흐르는 고운 물과 낮은 산언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 같다. 그런 그의 마음이 어쩌면 죽은 용래 시인이 입던 생전 흰 적삼 자락과 벌써 전 이미 인연으로 닿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짧은 머리, 의지가 돌 같고 강철 같은 올해 예순 하나의 만년 청년 화가는 이 여름이 몹시 바쁘다. 인천 「문학 경기장 매소홀 전시장 개관 기념 및 사회 복지 재원 조성을 위한 조부수 화백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 넘게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우리에게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더 잘 알려진 조부수 씨의 색동저고리처럼 밝고 진하고 즐거운 색깔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조 화백의 원색 추상 그림 속에는 시처럼 흐르고 있는 한 줄기 백제 시냇물의 우수도 있고 꽃도 있고 섬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인간이 사는 감동도 충격도 있다. “어떤 안개도 내 길을 덮지 못 한다”고 힘을 주어 말해도 그의 그림 속에는 오히려 가늘게 내리는 저녁 빗줄기처럼 희미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섬세한 성정(性情)이 배어 있다.

“중간색은 인정이 많으면서 유혹적이지요. 3원색은 보통 화가들이 쓰기를 망설이고 주저합니다만 나는 적, 청, 녹, 황 이 군소리가 없는 색채들을 통해 나의 감각, 나의 주장을 가장 간결하고도 확실하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색을 편하게 쓸 수 있노라고 그의 강렬한 눈빛이 말한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들통에 물감을 가득 풀어 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수많은 녹색 틀 같은 것들을 그려 넣기도 하고 청색 무늬를 가득 채우기도 하는 것이다. 흰 무지(無地) 티셔츠에 “boos”라고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은, 그 색깔이 남들이 망설이는 그의 내면의 원색이다. 미대 출신 부인과 유니폼처럼 함께 디자인해 입은 초록과 적색과 청색 그림 글씨의 귀여운 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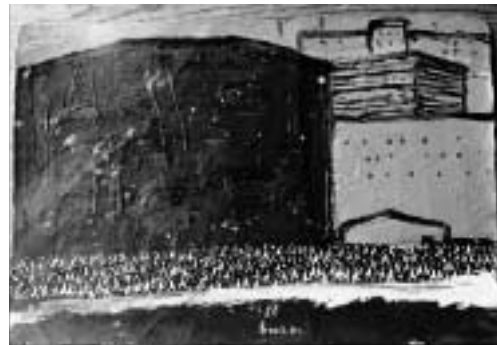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는 광경도 특이하다. 조 화백은 한 번에 여러 작품을 그린다. 어떤 때 갑자기 잠에서 덜 깬 듯한 그런 몽롱한 의식 속으로 무수한 심상(心象)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걸 한 화폭 속에는 도저히 다 담을 수가 없어 수십 개의 캔버스를 펼쳐 놓고 이리저리 건너뛰고 또 분주히 오가며 물감 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작품 제작 방법이다. 설리 매클레인이 주인공으로 나온 옛날 「누구에게 줄까요?」라는 영화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있다. 아니, 거기서는 음악에 따라 로봇 팔 같은 것이 이 화판 저 화판에 제 마음대로 물감을 뿌리는 것이다.

“신이 나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려진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런 속력이 몸에 붙어버렸어요. 그게 아마 작년 여기 부여에 와서 완전히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툄툄 툄어내며 조부수 화백이 소년처럼 천진한 웃음을 눈가에 잡는다. 저릿저릿 손가락이 오그라든 것은 붓을 너무 오래도록, 너무 정열적으로 잡는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몸 어디가 불구가 될 정도로 창작의 열정을 불사를 때 비로소 화가로서 해탈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철학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몸을 쓰지 못했던 말년의 앙리 마티스는 부인에게 작업을 일일이 입으로 지시했다던가.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무위적인 바탕 위에 무질서의 형태를 부여하고 다시 질서 있는 행위 작업으로 캔버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작업의 순서”라는 그의 말을 생각해 본다.



(Orchestration)」시리즈의 다른 그림들도 있고, 이응로(李應魯)의 것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먼저 그린 「군상」같은 뛰어난 그림들도 있다.

아무튼 조부수 씨에게는 신명이 있다. 단단하고 강인하고 섬세하고 착하고 자신 만만함이 있다. 조금 다변스럽기도 하면서 또 아무 거칠 것이 없다. 자기 길을 가는 작은 거인. 색채의 천재. 이 말들은 다 외국 화랑이나 매스컴에서 그에게 붙인 수사(修辭)들이다. 옳은 지적이다. 이 화가의 어린 시절, 특히 고등학생 시절의 그림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홍예문」「남향」「제빙공장」 같은 작품들은 무슨 고분(古墳)의 벽화처럼 아주 신비롭기도 하고 현란한 채색을 가졌다. 그래서 누가 지적한 대로 그의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림’들은 그냥 우리 인천의, 우리 나라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이다.

“행정 수도가 근처로 오면 개발이다 뭐다 해서 강경 짓갈 시장이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요즘 눈 깜짝하면 아까운 옛날 집들 마구 부셔요. 그리고는 못 생긴 시멘트 덩어리를 집이라고들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건이다. 이 화가의 눈에 든 부여, 강경의 옛 집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정말 사건이다. 더구나 강경 짓갈 시장, 충남상회가 사라지는 것은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인천 사람이든 백제 사람이든, 새우젓처럼 짜면서도 짜지 않은 그런 애정을 그는 가졌다.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둥글둥글한 산언덕에 조소(彫塑)하는 아들과 함께 나란히 작업실을 짓고 영혼에 원색 물감 범벅을 하고 있는 화가 조부수 씨. 그가 인천에 오지 않으면, 명랑하고 재주 많고 영리하고 쾌활한 백제 땅에 진짜 안개가 없는 날을 골라 그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의 그림은, 그의 인생은 안개를 싫어한다. 그래서 박용래 시인의 한적하지만 외롭지 않은 「공산(空山)」을 그의 화실 쪽 산언덕에 보낸다.



무덤 위에 무덤 사네, 첩첩 산중  
달 있는 밤이면  
곰방대 물고  
무덤 속 드나들며  
곰방대나 털고  
머슴들은 여름에도  
장작을 패고  
무덤 속 드나들며  
장작이나 지피고



무덤 위에 첩첩 무덤만 사네.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저는 할말이 참 많습니다. 제 나이 23세에 지금의 남편과 만났습니다. 결혼하지 올해로 꼭 만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23세에 13년 나이차이가 나는 남편을 만났는데 자상하고 편하고 부담없고 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살 차이가 나셨는데 항상 다투셨고 심지어 폭행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아껴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친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마음에 안들고 나이드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부모님은 제 결혼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시고 딸에게 실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꼭 잘 살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결혼후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24살의 아가씨와 37살 된 노총각이 만났으니 남편은 아내가 물가에 내놓은 아기마냥 걱정이 되어 하루에도 수 십번씩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때 부모님 속을 썩여 드린게 한 없이 후회가 됩니다. 시집과 갈등이 있어도 또 남편 흉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항상 남편의 나이가 많다고 불만이 많으시니까요.

결혼은 내가 좋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친정이나 시댁 일에 있어서 고민도 이야기 할 수 있고 나에게 큰 힘이 돼 준다는 것을 그 때는 몰랐습니다.

한수진 (부평구 산곡1동)



## 백수와 결혼날짜를 잡고 나니...

14년 전, 그때도 취업하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는 남자는 대학원에 다닐 심산으로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아버지 연세가 많아 결국 대학원은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했다. 그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좁은 취업문을 넘어 서기 위해 연애다운 연애도 못했다. 그이는 여기저기 취업 원서를 내고 시험에 쫓아다녔지만 갓 졸업한 싱싱한 젊은이를 쓰느라 그에게까지 취업의 영광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2년이였다. 말만한 딸년이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친정아버지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보채셨다. 애인이라고 있는 남자는 2년이나 백수 생활을 하는 남자이다 보니 쉽게 인사를 시킬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알게 된 그 남자는 겁도 없이 우리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는게 아닌가!

친정아버지께서는 혼기 짝 찬 딸을 시집보내게 되었다고 얼마간은 좋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실을 나간 아버지께 아주머니 한 분이 “댁의 막내딸 사윗감은 직장이 어디래요?”고 물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참으로 할 말이 없었노라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역정을 내셨다.

막상 백수와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보니 황당한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그 후 남편은 어엿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 역할과 남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백수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했기에, 젊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싶다. 결혼식장에서의 막막한 심정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배시시 웃을 수 있다.

현성자 (남구 용현동)



## 엄마같은 고모의 늦결혼식

어린시절 엄마를 대신해서 8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조카를 엄마처럼 돌보던 우리 고모입니다. 그런 고모가 늦게 시집가는 날 군생활 탓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사진을 보면서 상렬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럴 때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언제나 마음만은 고모를 위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제일 많이 전화와 편지로 수다를 떠는 우리는 즐거운 고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고모의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제가 고모의 사진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고모의 가장 이쁜 때를 말입니다.

우리고 고모는 이명숙이고 일남 일녀를 둔 아름다운 아줌마가 되어있답니다. 벌써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요. 그래도 얼마나 젊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더 비단결이 고요. 언제나 그 날의 웃음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고모 예쁘지요?

이상렬 (남구 주안8동)



## 남편과 딸 사이에서

큰딸이 대학 졸업하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 생활에 적응 한다 싶더니 갑자기 같은 회사 직원을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는게 아닌가? 나보다도 더 놀란 남편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윗감이 맘에 안든다며 결혼말도 못 꺼내게 했다. 딸은 집에서 반대하지 출근하면 옆에서 같이 근무하지...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딸의 멋진 연애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유없는 남편의 반대에 난감 할 수밖에...(아직도 이유를 모름. 딸을 뺏긴 것 같은 느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겨우겨우 결혼 승낙은 했고 예식장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에 시어머니께서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입원 하시게 되었다. 조금씩 차도가 있어 병실에 옮겼지만 의사는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안좋을까 항상 걱정이었다. 결혼식날 아침, 식당에 차를 주차

하려는데 병원이라며 전화가 왔다. 가슴이 덜컥했다. ‘혹시?’ 그런데 뜻밖에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가? 축하한다는 더듬거리는 작은 목소리. 짧은 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 기분이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화창한 봄날에 치러진 큰딸의 결혼식은 결혼 승낙과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슴 조리며 치른 결혼식이었다. 남편은 지금은 사위한테 끔직한 장인이 되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결혼식 마치고 집에 와 딸아이의 방에서 한참이나 머물다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장현주 (남구 주안4동)

### 다음달 테마는 ‘운동회’입니다

‘운동회’에 얹힌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운동회 날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께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9월 20일 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빛바랜 결혼사진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들. 저는 일흔을 바라보는 할머니랍니다. 수줍어 안보내려 했는데... 그 시절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웨딩마치 하는 것이 한평생 여자의 소원이데 저는 흰 한복을 입고 결혼식한 것이 지금껏 서운합니다.  
**김형자** (부평구 청천2동)



### 8년전 그 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8년 전이 돼 버렸네요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지금 저희결엔 든든한 두명의 아들도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요. 항상 처음만난 그때처럼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해웅** (남동구 남촌동)



### 전통 혼례식장에서

전통혼례를 올렸던 사촌동생 사진입니다. 옆에 계신분은 고모와 친정엄마시구요. 모두 미인이죠? 고생해서 결혼한 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정숙** (남구 주안8동)



### 옛 사진첩을 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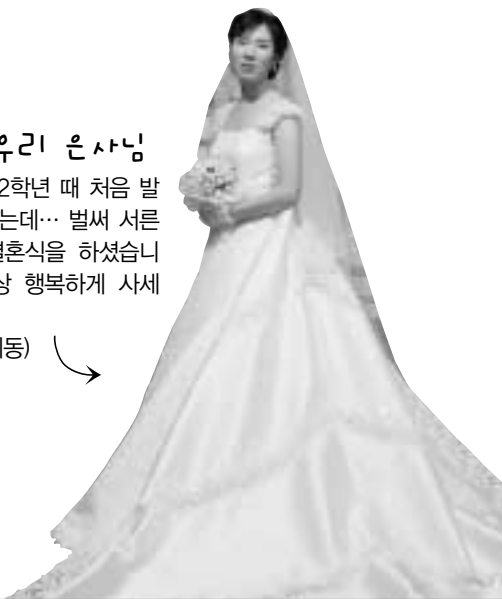
오래된 저희 고모님 결혼 사진입니다. 고모님 옆으로 큰엄마들, 작은고모, 올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됩니다. 올 추석에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이상화** (부평구 청천2동)

### 행복하세요~

지난 봄에 결혼한 언니와 형부랍니다. 7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두 분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구요,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래요. ^^\*  
**윤수연** (계양구 굴현동)

### 아름다운 우리 은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발령 받아 오셨었는데... 벌써 서른이란 나이로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항상 행복하게 사세요 ^^  
**허찬** (서구 연희동)



### 예정된 딸딸이 엄마?

결혼식날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결혼식 내내 신랑하고 세트로 웃었더니 지금 이렇게 '딸딸이 엄마'가 되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긴장된 마음을 웃음으로 숨기려 했던 것 같은데 참 순진한 신랑신부였죠?  
**최윤정** (서구 검암동)

## info box

### 인향초중고등 야간학교 신입생 모집

- 교육과정 : 초·중·고등과정 각각 1년 수료
- 모집인원 : 남·여 〇〇(연령제한없음)
- 모집마감 : 9월 25일(선착순 마감)
- 수업시간 : 월~금(저녁 6시~9시)
-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무료
- 모집처 : 송월동 3가 3-39 자유공원 기상대앞(구 송월동공부방자리)

문의 \_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772-4061  
팩스 772-4062 (오후 5시 이후 문의 바람), [www.inhyangschool.co.kr](http://www.inhyangschool.co.kr))

### 3회이상 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 혜택

- 분할납부대상자 : 지역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분할납부횟수 : 최고18회
- 분할납부 금액 : 가산금을 포함한 월 단위 체납보험료(국민, 외환, 신한, BC 등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신청 방법 :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 보험급여 혜택 : 1회 이상 납부해야만 됨
- 분할취소 :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2회 이상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되며, 보험급여 혜택도 취소된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 인하대병원 부인암 무료 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매달 무료건강공개강좌를 엽니다.

- 일시 : 9월21일(화) 15:00 ~ 16:00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부인암을 살펴보자
- 강사 :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
- 기타 : 참석자에게 무료 주차권 제공

문의 \_ 인하대병원 (890-2642)

### 2004 생활시간조사 실시

통계청에서는 '2004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 또한 무급노동(가사노동,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각종 관련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12일간) 실시하는 이 조사는 인천지역의 표본으로 선정된 만 10세 이상 약 2,277명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입주형태, 주택소유여부, 미취학아동 보육여부 등 가구 및 개인에 관한 사항과 요일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인별로 미리 지정된 2일간의 활동상태를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는 시간일지로 구성되며 조사결과는 2005년 6월에 공표 및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작성에만 활용되며 통

## 고인돌축제 행사일정

	10월 1일(금)	10월 2일(토)			10월 3일(일)		
시간 \ 장소	강화군일대	주무대	보조무대	고인돌광장	주무대	보조무대	고인돌광장
10:00~11:00	제85회 전국체전 성화 채화 (09시)	개막식					개천대제 (마니산)
11:00~12:00		외국인축하공연			전통풍물놀이		
12:00~13:00					전통혼례		
13:00~14:00	성돌이행사 (강화산성)		시낭송회	용두레공연 고인돌축조재현	고인돌 영페스티벌2	전통다도시연	재현행사 (마니산 상설무대)
14:00~15:00		원시인퍼먼스					
		전통혼례	고인돌OX퀴즈			고인돌축조재현	
		고인돌가요제	팔씨름대회		완초공예경진대회	외국인 축하공연	팔씨름대회
15:00~16:00	철종임금등극행렬퍼레이드 (고려궁지 → 문예회관)	예선전		고인돌축조재현	고인돌가요제		꽃창고
16:00~17:00		타악퍼레이드			방송녹화셋팅		
17:00~18:00		외국인축하공연					
18:00~19:00							
19:00~20:00	영페스티벌1 (i-FM공개방송)						
20:00~21:00		불꽃놀이			폐막선언레이저쇼		
21:00~							

### 상설행사(행사장일대)

- 원시광장 테마존
- 고인돌 원시체험
- 혁필화 가훈서예
- 전통다연 시연
-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 완초공예체험
- 팔만대장경 판각재현
- 고인돌 탐방 및 사진 전시
- 강화영상회 사진전시
- 먹거리 장터
- 고려청자 그려주기

### 1일행사 (행사장일대)

- 학생사생대회(10.2)
- 송편빚기대회(10.2)
- 오리요리시식(10.3)
- 세계가석문화 학술세미나(10.1)
- 제2회전국순무요리대회(10.3)

계법에 의해 응답자의 신분이나 비밀은 보호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조사과 (460-274)

한글날 기념 제6회 학생백일장



- **일시** : 9월 12일(일) 오전11시~오후3시
- **장소** :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남동구 장수동 471번지)
- **주최·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청소년수련관, 인천일보, 경인일보
- **종목**
  - 운문부 : 원고 매수 제한 없음

- 산문부 : 원고 매수(초등부 : 5매 내외, 중등부 : 7매 내외, 고등부 : 10매 내외)
- **제목** : 당일 발표
- **참가자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시상범위**
  - 대상 6명(운문·산문 초·중·고 각 2명) 인천광역시장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및 부상 외
-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추후 발표 (개별통보 및 인천일보, 경인일보에 발표)
- **준비사항** : 필기 도구 (원고지는 당일 배부)
- **참가신청** : 예약접수(팩스 876-1797) 및 당일접수(행사장)
- 문의** \_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863-1797, http://incheonmunin.or.kr/), 인천시청소년수련관(465-6827~8)

평화통일 음악제가 열립니다

- **일시** : 10월 3일(일) 18:00~20:20
- **장소** :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 **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전 국민
- **내용**

- ▷가요경연대회(창작곡 및 패러디곡)
  - 대상(1팀) 500만원 (가수분과 등록)
  - 금상(1팀) 300만원
  - 은상(1팀) 200만원
  - 동상(2팀) 100만원※수상자 전원 상패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명의)
- ▷축하 콘서트(A급 국내 정상가수 출연 예정. 태진아, 거북이, 김덕수, 오정해, 양희은, 임웅균, 신화, 베이비 복스, 안치환, 윤도현 등)
- ▷기타 부대행사
- **참가방법**  
**〈가요경연대회 공모〉**
- **공모기간** : 8월 1일~9월 10일
- **공모분야**
  - ▷작곡, 작사 완성 창작곡
  - ▷기존 가요를 개사한 패러디 곡
- **공모주제** : Imagine 2004 ‘진실된 결합을 향한 꿈’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인터넷
  - ▷제출물
    - 악보(가사포함) 1부 (소요시간 5분 내외 )
    - 노랫말 및 반주가 포함 수록된 카세



외국인에 편리한 음식점 107곳 첫 지정

우리는 외국인이 앉기에 편하게 의자와 식탁이 설치돼 있고 서비스, 맛도 우수한 음식점 107곳을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선정했다.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는 해외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맛있는 음식점’ 88곳과 별도로 이처럼 외국인 취향에 맞는 음식점을 처음 지정했다.

음식점	위 치	연락처(032)	음식점	위 치	연락처(032)	음식점	위 치	연락처(032)
오성공원	중구 남북동	746-0781	치치포포	연수구 동춘동	816-7788	풍경	계양구 계산동	551-6600
청하	중구 운남동	751-0448	홍익크리스탈뷔페	연수구 동춘동	818-3333	에스터데이	계양구 작전 3동	554-8117
토촌시골밥상	중구 송학 1가	762-1921	경복궁	연수구 옥련동	831-7776	전주돌술밥	계양구 작전동	556-1600
부전	동구 화수동	765-5600	송도갈비	연수구 옥련동	832-2222	경복궁	계양구 작전동	556-7776
현대회관	동구 송림동	764-4266	영빈관	남동구 구월 1동	428-0028	석남제일로가든	서구 석남동	577-6007
연평도 해물탕	남구 주안 8동	439-7902	수림공원식당	남동구 간석 4동	424-4444	아리랑가든	서구 가좌동	577-9922
아리랑	남구 주안 6동	423-7718	서라벌	부평구 청천 2동	526-8750	경복궁	서구 가좌동	583-7767
문학궁	남구 문학동	421-5000	제일가든	부평구 청천 2동	501-1362	우가우가	서구 가좌동	583-6655
금강산	남구 용현 5동	881-9282	미가원	부평구 청천 2동	505-0092	갑곶돈대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932-2580
송의가든	남구 송의 4동	884-2266	홍남면옥	부평구 산곡 3동	504-9332	청사초롱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37-9777
경복궁	남구 학익동	423-7718	술발가든	계양구 계산동	545-9900	작은행복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36-5200
송도공원	연수구 동춘동	831-0001	도원	계양구 계산동	552-5858			

- 트 테이프 또는 CD 1개(CD의 경우 디지털 음악 방식(MP3) 접수 가능)
- 참가신청서 1부 (2인 이상일 때는 해당자 모두 기재)
- **자세한 내용**
  - ▷홈페이지 : www.tongiisong.com 또는 www.acdpu.go.kr
  - ▷전화상담 : 02)334-8746/2250-2234, 02)2250-2234

제15회 시민문예대전 시민문예작품공모

-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한국문단과 향토문단의 주역이자 세계의 문학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인의 작품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시·시조 : 5편 이상(매수 제한 없음)
  - 소설 : 단편 2편(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수필 : 3편 이상(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아동문학
    - 동시 : 10편 이상(매수 제한 없음)
    - 동화 : 2편 이상(매수 제한 없음)
  - 문학평론 : 2편(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모집기간** :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우편접수시 31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7-4 문화회관 내 4층 문인협회
- **주최·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863-1797, fax 876-1797)
- **후원** : 인천광역시,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 경인일보, 인천일보
- **참가자격** : 대학생 및 일반 시민(인천광역시 근접지역 거주자)
- **시상 범위**
  - 부문별 대상 1명(인천광역시장상) 시상금 : 각 80만원, 소설 100만원 외
- **특전** : 대상 수상자는 기간 「학산문학」 1회 추천으로 간주, 학산문학 차기 지면에 작품 수록 및 차기 2회 추천기회 부여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공모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제안’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접수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우편번호 405-750), 방문(거주지 관할 군·구청(읍·면·동사무소) 시민제안담당자, 인천시청 자치행정과), FAX(032-432-0070)로 접수
- **제안서 교부처** : 시, 군·구, 읍·면·동사무소(시민제안담당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안대상**
  - 각종 규제개혁과 제도·법령 개선 사항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행정서비스의 향상 방안
  -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제안
  -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유류, 전력 등 에너지 절약 방안
  - 인천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제안
  -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제안
  - 교통분야 개선을 위한 제안
  - 기타 방법(예 자치행정 모니터 광장 등)으로 시민이 의견을 개진(제출)한 것 중 담당 공무원이 인천발전을 위한 제안이라 판단되는 것
- **제출서류** : 시민제안서(제안설명서), 참고자료(필요시 : 고안품, 설계도, 사진 등)
- **시상**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50만원, 장려상 (3명) 각30만원 등 시장 표창 및 시상금 지급
- **최종(본)심사결과와 창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제안자에게도 소정의 사은품 증정**
-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440-2425)

터미널시네마 <귀신이 산다> <꽃피는 봄이 오면> 외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8월 27일부터 <도마 안중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9월 17일부터는 <귀신이 산다>와 <꽃피는 봄이 오면>, <80일간의 세계일주>를 각각 상영합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5백원, 학생 5천5백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입상자 발표 : 11월 중순 (인천문협 홈 페이지, 관내 일간지 및 개별 통보)  
•시상식 : 추후 통보(2004년 12월 예정)  
**문의** \_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863-1797, http://incheonmunin.or.kr/)

유기농 체험학습 떠납니다



인천 녹색연합에서는 강화 유기농 체험 현장 학습을 떠납니다.

- 일시 : 10월 15일 09:00 ~ 16:00
- 장소 : 김정택님 덕 (강화군 양도면 ), 박흥열님 덕 (강화군 화점면 )
- 참여대상 : 회원, 일반시민 및 가족 (선착순 80명)
- 참가비 : 회원 10,000원, 비회원 15,000원
- 신청기간 : 9월 1일 ~ 10월 10일
- 준비물 : 물, 시장바구니(고구마, 배, 된장 담아오기)

**신청 및 문의** \_ 인천녹색연합(548-6274 / 548-6574), 박선영 간사 (011-9747-5228)

부동산경매컨설턴트전문가과정 모집

부동산경매컨설턴트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는 인천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부동산경매컨설턴트의 자격인증서를 수여합니다.

- 모집대상 :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모집인원 : 70명
- 교육기간 : 9월 13일~12월 27일 (16주 과정, 매주 월·수 18:30~21:30)

인천여성복지관 직업 및 문화아카데미교육생 모집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본관)에서는 여성의 풍요로운 삶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전문교육 및 문화아카데미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일시 및 방법
  - 문화아카데미 : 9월 14일(화) 10:00 추첨 또는 선착순
  - 직업전문교육 : 9월 16일(목) 10:00 추첨 또는 선착순
- 교육대상 : 인천거주 여성  
(단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야간)과 웹디자인(야간)은 남성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분야별	과 정 명	비고
직업 전문 교육	*한식조리실습Ⅱ, 한식조리기능사(오전·야간), *양식조리실습Ⅱ,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김치전문, 한국자수, 왕골공예, 매듭, 규방공예, 제과제빵기능사, 도배기능사(오전·오후), 미용기능사, 한복기능사, 양재기능사, 실용의상, *PC활용. 컴퓨터OA,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야간) 한복연구, 생활한복, 펌백이바지음식, 떡한과, 케익&홈베이킹. 미용창업, 피부특수관리, 실용의상연구, 홈페이지제작, 포토샵, 웹디자인(야)	*표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문화 아카 데미	꽃꽂이, 손뜨개, 생활도예, 홈패션, 동양화목화, 민요가락, 서예문인화, 한국무용, 발건강관리,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기공&태극권,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수채화, 기초실용영어, 기초실용일어, 기초실용중국어, 꿈꿈컴퓨터, 특선요리(야), 반찬요리(야), 과자케익빵(야), 요가(신설 과목). 파워노래교실	

- 교육기간 : 10월 5일~12월 28일 (3개월)
  - 수강료 : 문화아카데미교육 월 10,000원  
직업전문교육 (교육일수기준: 주2일이하 월10,000원 / 주3일이상 12,000원)
  - 준비물 : 신분증, 기별 수강료
- 문의** \_ 여성복지관 교육팀 (425-1362, 440-6556~8//women-center.incheon.go.kr)

- 강의장소 : 인천대학교 본관 4층 422호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8월 2일~9월 10일
  - 접수장소 : 본대학 본관 9층 (906호) 경영혁신원
  - 금액 : 전형료 10,000원 및 등록금 700,000원(교재비 포함)
  - 기타 : 반영합판 사진 2매
  - 납부장소 : 한미은행 인천대학교 출장소 또는 계좌입금
- 합격자결정 : 등록 선착순(전형료와 등록금을 납부하신 순서대로 합격됨)
- 교육과정
  - 교육특징 : 과정수료 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경매·공매에

- 직접 참여하거나 부동산경매에 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동산경매컨설턴트를 양성
- 교육내용 : 실무중심의 강의 및 답사
- 강사진 : 대학교수, 관련 저명인사 (부동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전문가로 구성)
- 특전
  - 본과정의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정시험의 합격자에게는 본 대학 총장의 명의로 부동산경매컨설턴트의 자격인증서를 수여
  - 본원의 강사진이 작성한 교재를 무료로 배포함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에 입학하는 경우 혜택 부여  
**접수 및 문의 전화** \_ 인천대학교 경영혁신원 (770-8919, 8512)

인천물사랑 사진 공모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한 생활·자연환경 사진을 공모합니다.

- 작품주제 :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한 생활, 자연환경 사진으로 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 출품규격 및 수량 : 11 X14 (컬러·흑백사진, 장정불요) 1인당 3점 이내
  - 접수기간 : 9월 1일(수) ~ 9월 20일(월)
  - 심사결과 발표 : 10월 9일(금)인천광역시(www.incheon.go.kr)·인천일보(www.incheontimes.com), 인천녹색연합(www.greenincheon.org)홈페이지 게재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일반부문(대학생포함) :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금상 2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4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8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입선 3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 학생부문 (초·중·고등학생) : 대상 1점 상장 및 노트북, 금상 2점 상장 및 디지털카메라, 은상 4점 상장 및 MP3, 동상 8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원), 입선 40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 (3만원)
- 접수 및 문의** \_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8층 440-1518), 인천녹색연합(계양구 계산3동 1062 하이베라스-D-712 548-6274)

2004년 제26회 시민상을 시상합니다

10월 15일 제40회 시민의 날을 맞아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시민과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영예로운 시민상을 수여합니다.

- 시상부문 및 인원 : 3개부문 9개분야 10인 이내
  - 사회공익상 부문(6인), 효행상부문(1인), 산업발전상 부문(3인)
- 자격요건
  - 2004. 10. 15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 시상 부문별 공적내용이 현저한 시민
- 추천권자
  - 군수·구청장(10), 유관기관장(6), 사회단체장(16), 지방언론사대표(5) 등
  - 기타 시민단체·일반시민도 추천권자를 통하여 추천가능
- 추천자 접수
  - 접수기간 : 9월 15일(수) ~ 9월 21일(화)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 시 상
  - 일 시 : 10월 15일(금)
  - 장 소 : 제4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장
  - 시상내용 : 상패, 부상 [시회장 순금메달 (100만원 상당)]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2~ 6, 담당 윤병석)

선거가 끝나도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품·음식물 등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로부터 50,000원의 찬조금을 제공받았다면 2,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수사단서 제공·진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확인된 불법비용의 50배 이내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생활주변 각종 선거 지원합니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농·수·축협조합장 선거 및 공공단체선거 / 아파트자치회장, 노동조합장 등 각종단체선거 / 기타 생활주변의 각종선거
- 지원내용 :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장비 / 투·개표 등 선거절차 안내 및 비디오 테잎 등 자료제공 / 선거과정 참관 및 자문 / 요청기관·단체의 의사에 따라 단순 참관·선거자문·선거관리직접참여 등 지원 / 선거관련강연 요청시 위원회 직원이 출강

**문의** \_ 시 선거관리위원회 (428-2143)

시민명예기자단 추가 모집합니다

시 공보관실에서는 인천시민명예기자단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정보, 사회복지, 청소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 관광, 투자, 환경, 기타 분야 등에 걸쳐 100명 내외입니다.

- 모집기간 : 8월 20일 ~ 9월 8일 (시 홈페이지 배너광고 클릭)
- 모집기준 : 인터넷 및 E-Mail사용자로서 시정에 관심이 많고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 전문가(시민)이다.

- 활동방법
  - 인터넷 전자신문내 시민기자실에 기사 게재
  - 각종 시정시책 및 현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 년 1회 정기 간담회를 갖고 활동사항 보고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인센티브
  - 월 1회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제공
  - 시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및 CD 제공
  - 연말 우수시민명예기자 선정 표창, 상품 수여

문의 \_ 시 공보관실 (440-2042)

영어연극 참여 어린이 모집



극단 십년후에서는 9월부터 시작 될 어린이 영어연극 ‘일곱 개의 수수께끼(Seven Riddles)’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 기간 : 9월초부터 2005년 1월말까지 매주 화, 목 5시 30분~7시
- 장소 : 극단 십년후 연습실(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4번 출구)
- 수강료 : 월 150,000원

문의 \_ 극단 십년후 (514-2050)

추석 맞이 민속문화 축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인천도호부청사와 수봉 민속놀이마당에서 민속문화축제가 열립니다.



• 인천도호부청사

일 시	9월 28일 (화) ~ 9월 29일 (수)
무대 공연 행사	• 평택농악/줄타기/경기민요/삼현육각(강강수월래)/은울탈춤/북청사자놀음/이리농악/밀양백중놀이/서도소리 • 타악퍼포먼스 난타 : 한울소리 전통 난타 공연 • 어린이마임, 어린이 탈사랑 풍물패, 줄넘기
대회 행사	• 윷놀이 대회 : 시민들이 무형문화재들과 어울려 함께하는 민속놀이 • 장기 대회 : 청소년/장년/노인반으로 나누어 별도 실시 • 투호 및 제기차기 : 가족단위 대회개최 및 외국인과의 화합대회 개최 • 송편빚기 대회 : 부녀자대회중심으로 개최하되 어린이, 외국인 등 참여 유도
민속체험 행사	• 가훈 써주기 : 서예협회 등 중견작가들의 시민을 위한 무료가훈 써주기
특별 행사	• 떡매치기, 연만들기, 투호놀이, 탈춤취보기, 널뛰기, 혼례복입고 사진찍기 등 - 전통혼례시연 : 옛 혼례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고유 전통혼례 시연 - 외국인 근로자 중 희망자 전통혼례시연

• 수봉공원 민속놀이마당

일 시	9월 28일 (화) ~ 9월 29일 (수)
실향민을 위한 무대공연 행사	• 서도소리/은울탈춤/북청사자놀음/평택농악/줄타기/경기민요/이리농악/밀양백중놀이 • 어린이 탈사랑 풍물패
부대행사	• 실향민 망향제 • 송편 만들기 및 나눠먹기
특별행사	• 실향민과 함께하는 민속노래자랑

사업 고민  
짜~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위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폭 에 담 긴 인 천 풍 경 16 | 전운영 〈연안부두〉



〈연안부두〉 53×41cm, 캔버스에 유채, 1998

전운영은 인천 토박이로 홍익미대를 졸업하고 줄곧 인천을 연고로 작업하며 인천 아카데미즘의 한 축을 형성해온 중진이다. 그는 전업 작가로서 인천사생회와 홍익대동문전을 이끌며 인상주의적 자연해석으로 대상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이의 속성을 요추하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운영은 근대인상주의의 과학적 시각과 한국적 서정을 자신의 정서에 융화시켜 그만의 독특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은 연안부두의 정경을 편한 마음으로 사생한 것이다. 회색조의 배경에 간간히 원색의 포인트를 가함으로써 대상을 강조하고, 정박해 있는 배들의 한가로운 정경은 분주한 현대인의 일상을 비웃는 듯이 느긋하다. 그러나 멀리 보이는 인천의 해안선은 이미 회색 빛 아파트나 공장으로 채워져 있어 한가로운 서정을 보여주던 과거 연안부두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야 할 새로운 향수의 모티브일지도 모른다.

글 \_ 이경모(미술평론가/인천대학교 겸임교수)